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

社會背景 / 19

方 言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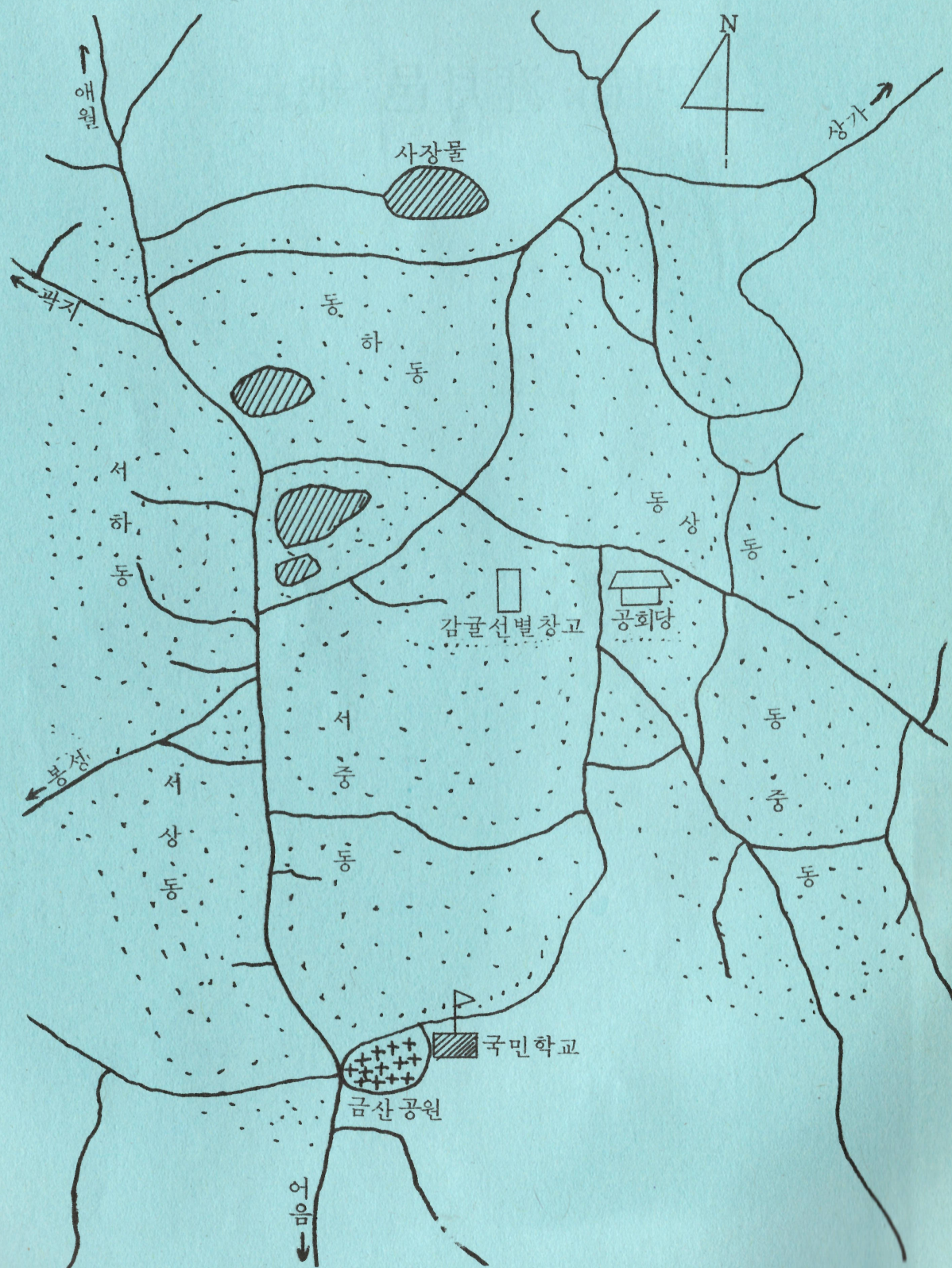
民 謠 / 43

說 話 / 66

信 仰 / 79

地 名 / 94

納邑里部落全圖



社 會 背 景

指導教授 金 榮 敦

班 員 康 宗 祐 (國教 · 3)

文 眞 弘 (國教 · 2)

目 次

I . 地理的 環境

II . 歷史的 背景

III . 人文概況

IV . 産業構造

I . 地理的 環境

納邑里는 濟州市에서 中山間道路를 따라 남서쪽으로 약 3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이다. 行政區域上으로는 北濟州郡 涯月面 納邑里로 되어 있으며 흔히 <과남>이라 불리워 진다.

해발 80~90 m 고지에 集落된 이 마을은 제주도의 어느 산에 올라가 내다보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盆地를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에 155 m의 <과오름> (郭岳) · 서쪽에 143 m의 <도노미오름> (於道岳) · 북동쪽에 172 m의 <고내오름> (高內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村老들은 마을 地勢가 마치 “말발굽 같다” 하여 <말발굽형 (走射馬跡形)>,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 같다” 하여 <암탉이 알을 품은 형 (金鷄抱卵形)>, 또는 “바위를 방석이 에워싸고 있는 형체”라 하여 <좌방석 에은 바위형>이라고 한다.

盆地를 이룬 이 마을의 인접부락으로는 集落을 중심으로 2 km 동쪽에 上加里, 2 km 서쪽에 鳳城里, 2 km 남쪽에 於音里, 3.5 km 북쪽에 涯月里, 2

km 서북쪽에 郭支里가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한담〉까지를 포함하는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해 안에 떠오르는 屍身 處理 問題가 큰 부담이 되어서 소유권을 포기한 이후 里面積은 700 ha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耕地面積이 총면적의 약 반정도인 380ha에 불과하였다. 住民들은 舍心하여 천박한 牧野地를 일구어 지금의 700ha의 비옥한 농토를 만들었으며, 한 草地는 於音·上加境에 550ha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1962년 上水道가 가설되기 전까지는 〈사장물〉 〈큰새미〉물을 마을 공동으로 食用水로 이용했는가 하면 여러 동네에 있는 봉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기도 했다. 河川으로는 이 마을 서쪽 1.5 km 거리에 鳳城里와 경계가 되는 〈해아미내〉가 있을 뿐이다.

樹種은 여느 마을과 비슷하게 팽나무가 대부분이나 西上洞에 위치한 錦山公園에는 신나무·가시나무·동백나무 등 常綠樹 150여종과 50여종의 針葉樹·闊葉樹로 暖帶林을 형성하고 있어 自然石과 더불어 景觀을 이루는가 하면, 學術研究資源으로 값어치가 인정되어 天然紀念物 第182~4號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원래 防邪機能을 위해 나무를 심어 조성된 곳으로 禁山이었던 것이 1954년 在鄉軍人들이 담장 1천m를 축성한 뒤 錦山으로 바뀌어졌다 한다. 이 錦山公園內에 박물관이 있어 先人들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先人 선비들이 글 읽고 풍월하던 곳으로 지금도 詩友會 회원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年中 기후는 온화한 편이다.

유물유적으로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 成均進士靜軒金先生碑·烈女碑·柏庵秦炳植碑와 錦山公園內에 위치한 박물관 등과 文化財保護區域인 錦山公園을 들 수 있다.

Ⅱ. 歷史的 背景

이 마을의 歷史는 500년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納邑鄉史》(金孟玉外 5人編著, 1969)에 의하면, 設村年代를 都近川(外都)에 水精寺가 세워진 1291년 이후 약 100여년 사이로 추정하고, 지

금의 <둥덩이>·<곰팡이> 두 곳에 文氏·高氏가 設村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곳에서 기와조각이 발견되기도 하며, <대왓> 伝説도 <곰팡이>가 예전에 住居地였던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둥덩이>·<곰팡이>에 10여호씩 人家를 이루어 샘을 파서 음료수를 얻고 농업과 목축을 하며 自治制로 100여년의 鄉史를 누려오다, 1546년부터 耽羅高氏·金海金氏·羅州金氏·晉州姜氏·原州邊氏 등이 차례로 入鄉해 들어오고, <둥덩이>·<곰팡이>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점차 중앙으로 集中하여, 耽羅高氏가 入鄉한 1546년부터 1674년까지 근 100여호의 家口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마을이 커지자 마을에서는 戶長을 모시고 諸般 鄉事를 주장하게 하고, 食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샘을 파는 한편, 농업과 목축으로 生計를 維持하면서 큰 일이 생기면 서로 相扶相助하는 美風良俗을 美德으로 삼고 생활해 나갔다.

<과납>으로 불리던 이 마을이 ‘納邑’으로 改名하게 된 것은, <과오름> (郭岳)에 있는 金晉鎔(明道庵先生)의 先墓가 임금을 나을 터라고 朝廷에 誣告하자, 朝廷에서 蘇斗山牧使를 내려보내어 이곳 地勢를 살펴보게 한 1675년부터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때부터 右面이 旧右面과 新右面으로 分割한 1774년까지 약 100여년 동안 이 마을은 점차 外来居民이 늘어나 150여호에 달하는 大部落을 이루게 되었다. 아직 里境界가 확실하지 못하고 境内에 일이 생기면 境内 住民이 부담하던 때라 住民 부담을 줄이고 쓸모 없는 땅을 축소하여 비로소 남쪽으로는 <둥지거리>, 북서쪽은 <과오름> (郭岳)을 중심으로 하여 바닷가까지, 북동으로는 <한담>까지로 하는 里境界가 1709년에 그어졌다.

1684년에는 몇 차례의 病苦와 凶年이 겹치게 되자 <뒤밭>(지금의 錦山公園) 中央에 祭壇을 마련하고 秋春祭를 거행하기 시작했으며, 中央道路邊에 鄉舍를 지어 각종 행사를 하는 한편, 1694년에는 射場을 설치하여 射弓兵法 鍊磨에 注力하기도 하였다.

納邑里는 文鄉 내지 班村으로서 널리 알려졌다. 예전부터 곳곳에 書堂을 마련하여 後世教育에 힘썼으며 많은 분들이 文·武科에 登科함은 물론, 점차 文鄉·班村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戶長制를 폐지한 1774년부터 韓日合邦까지 <둥덩이>·<과남밭>·<굴

왔>에 있던 人家 전부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300여호에 달하는 大部落을 형성하게 되었다.

里제도 改革하여 尊位, 警民長, 洞長 등 議察官制度로 治里하여 오다가 1905년 五任制로 개혁, 鄉長, 頭民, 里長, 副長, 解書官, 有司, 都監制를 두었으며, 1906년부터 東西 6洞에 6契長을 두었었다.

<한담>을 중심으로 어업에도 종사해 오다가 韓日合邦 이후 <한담>境을 포기함으로써 郭岳남쪽 道路로 그 경계가 축소되었다. 五任制를 폐지하고 里長 1人 都監 2人을 두어 鄉事를 통할처리하였었고, 1916년에는 마을 중앙도로를 경계로 東西 2區로 나뉘 區長制를 펴기도 했었다.

1924년 鄉舍를 改築하여 “納邑里改良私塾”이라 校名을 定하여 新式教育을 시작하였다.

이 마을도 제주도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물문제는 심각했었다. 가뭄이 들면 먼 길을 걸어 해안에서 식수를 운반해야 했으며, 人口가 점차 증가하게 되자 음료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7년 <큰새미물>을 파고, 그 주변에서 작은 못 3개소를 개발하기도 했다. 1917년에 공사하다 중단한 <사장물>을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여 3년간의 大役事로 수심 8m, 400평 규모의 큰 못을 만들어 상수도가 가설되기 전까지 식수 해결에 큰 몫을 하였다.

4.3 사건은 이 마을에도 큰 피해를 입혔었다.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전주민이 涯月里, 郭支里로 疎開해야 했으며, 학교 건물도 全燒되었었는데 1954년에 全住民이 協心하여 再建되기에 이르렀다.

500여년의 文鄉, 班村의 歷史를 지닌 이 마을은 人物도 많았다. 登科한 분들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代表人物로 三邑都訓長을 지낸 金靜軒 進士를 위시하여 安良弼, 邊是重, 金衡重 등을 들 수 있다. 烈女로는 三綱錄 湖南誌에 오른 金性準의 妻가 있다.

오늘의 納邑이 있기까지에는 면면히 이어온 先人 先覺者의 선비자세가 精神的 支柱가 되었으며 <사장물>을 만들 때 드러난 바와 같은 住民들의 協同心이 원동력이 된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Ⅲ. 人文概況

納邑里는 東上洞(‘땃거리’와 ‘중남이’)·東中洞(‘도개거리’와 재뽏거리’)·東下洞(‘모살빌레’와 ‘큰거리’)·西上洞(‘내구니믈’과 ‘서잣질’)·西中洞(‘황계목’과 ‘동잣질’)·西下洞(‘꼭낭믈’과 ‘문지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 個班으로 나뉘 있다.

460 家戶에 人口 2,012 名으로 戶當 平均人口는 4.4 名이다.

<表 1>

家 口 및 人 口

涯月面 納邑里

家 口	460 戶	農 家	453 戶
		非 農 家	7 戶
人 口	2, 012 名	男	985 名
		女	1, 017 名

資料：納邑里事務所提供

1977 年 12 月 31 日 現在

<表 2>

姓 氏 構 成

涯月面 納邑里

	金	姜	康	高	文	夫	朴	裴	邊	宋	趙	安	梁	尹	李	俞	鄭	秦	崔	徐	玄	洪	張	計
男	132	31	·	20	24	·	2	1	6	1	4	1	36	1	8	7	·	50	1	2	8	8	1	344
女	33	19	1	6	4	1	4	·	2	1	·	·	15	·	3	1	1	11	·	·	3	3	·	108
計	165	50	1	26	28	1	6	1	8	2	4	1	51	1	11	8	1	61	1	2	11	11	1	452

(단위 : 세대)

資料：納邑里事務所班員名簿

1977 年 10 月 31 日 現在

濟州島部落誌(Ⅱ)

年 齡 別 人 口 現 況

<表 3> 涯月面 納邑里

연령 성별	0~9	10~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 79	80~ 89	90~	계
남	218	266	130	100	90	62	43	20	16	1	946
여	196	237	105	84	114	97	64	66	24	4	991
계	414	503	235	184	204	159	107	86	40	5	1,937

資料：涯月面事務所提供

1976 年 12 月 31 日 現在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氏가 대부분이며 秦·梁·姜氏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同姓끼리 같은 部落을 이루고 있어 同族部落의 性格이 짙다.

공공기관으로 里事務所와 納邑國民學校 및 涯月面 農業協同組合 納邑分所 등이 있는데, 里事務所는 大統領 下賜金과 里民의 힘을 합쳐서 증축되고 있으며 里民館으로도 사용되리라 한다.

納邑國民學校는 1946 年 射場에서 開校하였고, 1954 年에 錦山公園 옆으로 옮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進 學 率

<表 4> 涯月面 納邑里

연도 구분	1969 年	1970 年	1971 年	1972 年	1973 年	1974 年	1975 年	1976 年
재 적	57	61	60	53	55	55	50	52
진 학	46	44	50	48	48	43	44	52
진학률	80.7%	72.1%	83.3%	90.5%	87.2%	78.1%	88%	100%

資料：納邑國民學校提供

1977 年 12 月 31 日 現在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教育熱이 대단하며, 1977年 12月 31日 現在 卒業生數는 28 회에 거쳐 1,194 名에 이르고 있다. ('78년 現在 재학생은 316 名)

공공건물로는 搗精工場(60 坪) 1 동, 農協倉庫(40 坪·50 坪) 2 동, 새 마을회관(建立中), 감귤집하장(80 坪) 1 동 등이 있다. 그리고 錦山公園에 私設 民俗館이 있어서 작은 규모이지만 民具등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또 도정공장 안에 공동착유공장(30 坪)이 있으며, 이발소·공동착유공장·감귤집하장 등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酬祭를 비롯한 마을 공동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공식기구로는 青年會, 婦人會, 4 H구락부, 감귤작목반, 목장조합, 영농회 등이 있으며, 비공식기구로는 친목을 도모하는〈물꺾래집〉, 〈장막집〉, 〈화단집〉, 〈벤줄레집〉, 〈산담집〉, 〈쫄집〉, 〈술집〉, 〈그릇집〉 등이 있고, 재경친목회, 재일친목회 등도 있다.

한편 先人들의 生活樣相을 살필 수 있는 硯子磨는 과거 30 基가 있었는데, 文明의 發達과 더불어서 사라져, 그 명칭만 남아있을 뿐으로, 〈큰거리물방에〉·〈땃거리물방에(2 基)〉·〈네전이마를동네물방에(2 基)〉·〈너븐밭물방에〉·〈한질가름물방에〉·〈동잣질물방에〉·〈서잣질물방에(2 基)〉·〈폭낭마르물방에〉·〈문지동네물방에(2 基)〉·〈굴짓물방에〉·〈서알동네물방에(3 基)〉·〈동알동네물방에(3 基)〉·〈답다니물방에〉·〈앞빌레물방에〉·〈안울레물방에〉·〈곰진드로물방에〉·〈자뽏거리물방에〉·〈누루기동네물방에〉·〈종나미동네물방에〉·〈바랑세미물방에〉·〈동안울레물방에〉 등이 바로 그것이다.

住民의 信仰은 토속신앙과 더불어 佛教도 들 수 있지만 특히 옛부터 儒教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10 여년전까지만 해도 2~3 個의 書堂이 殘存해 있었고, 私設 漢文書堂이 있었으니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納邑里에는 佛寺로서 月印寺와 靑龍寺가 있으며 信佛者는 200 여명 된다. 그리고 예수교 伝道會가 있는데 10 여가구가 이를 신봉하고 있으며, 韓國日蓮正宗佛教會 濟州道總本部 西部地域 納邑班이 있는데 個人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30 여가구가 이를 신봉하고 있다.

특이한 모임으로 젊은이들이 모여서 時調를 읊는 詩友會가 있다.

濟州島部落誌 (Ⅱ)

家屋坐向은 東部落이 대부분 北向이고 西部落은 거의가 西南向이다.

1972 년 재일친목회와 정부의 보조로 전기가 가설되었으며, 文化施設現況은 <表 5> 과 같다.

文 化 施 設

<表 5>

涯月面 納邑里

전 화	T · V	신 문	라 디 오	전 축	재 봉 틀	동력분무기	경 운 기
1	120	50	400	30	200	20	10

資料：納邑里事務所提供

1978年 7月 31日 現在

또한 우체통이 설치되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번씩 집배원이 다녀가고 있으며, 1970년에 공동수도가 가설되었고, 1973년에는 개인수도가 가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급수율은 100%이다.

이 마을에는 잡화점이 8개소, 이발관이 1개소, 木工所가 1개소, 가축병원 1개소, 애월약국 납읍출장소 1개소가 있으며, 生必需品은 五日場에서 구입하고 있다. 五日場은 1970년에 설치, 5일과 10일 <질왓빌레>에 서는데 그 면적이 2,000평 정도 된다.

通婚圈은 과거 주로 鳳城, 上加, 涯月, 於音, 歸德, 明月 등지였었고, 현재는 鳳城, 上加가 위주이면서도 각지역에도 뻗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인척관계도 있고 살아가기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婚禮時에 행해지던 <이바지>는 약 30年前부터 없어졌다.

4.3 事件때 納邑國民學校와 家屋 5戶가 타버렸었고 人命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牛馬가 상당수 피살되었다 한다.

Ⅳ. 産業構造

納邑里는 원래가 質 좋은 土地는 아니었다. 住民의 땀으로 地質을 바꿔놓았으며, 지금도 牧野地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上加 근처의 <활면밭>에 면적이 30정에 달하는 공동수탁목장이 있으며, 자연급수장 시설을 갖추고 있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

는 집만 보더라도 農業에 못지않은 畜産業의 실태를 알 수 있다.

年度別 畜産現況

<表 6>

涯月面 納邑里

연 도	한 우	고 기 소	돼 지	말	산 양	개
1976	725	104	381	15	145	97
1977	732	195	300	54	216	55

資料：涯月面事務所提供

1977 年 12 月 31日 現在

부락공동목장현황

<表 7>

涯月面 納邑里

분 류	国 有	面 有	里 有	計
면 적 (ha)	78.3	68.75	52.67	199.82

資料：涯月面事務所提供

1977 年 12 月 31日 現在

싸이로시설현황

<表 8>

涯月面 納邑里

소 유 자	진 홍 수	양 봉 두	강 순 형
용 적	30 m/ t	30 m/ t	30 m/ t
설 치 년 도	1974	1974	1974

資料：涯月面事務所提供

1977 年 12 月 31日 現在

牛馬는 옛부터 상당수를 들에 방치해 두면서 키웠다. 高內峰에 소를 집단으로 방목해 두고는 풀은 納邑까지 와서 가져다 주었다.

濟州島部落誌(Ⅱ)

戶当平均耕作地面積은 3.6 ha 로 鳳城里의 1/2 정도로 狹小한 편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면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이것은 근래에 감귤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감귤은 1963년 本里出身 在日僑胞 秦重八氏가 日本産 감귤묘목을 해마다 2,000本씩 보내어 마을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약속한 때부터 심어졌다. 지금은 감귤나무를 大學나무라 부를 정도로 住民의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土地活用狀況

<表 9>

涯月面 納邑里

計	林 野	耕 地 面 積			戶当耕地面積
		計	밭	감 귤	
1,667.3	745	922.3	832.3	90	3.6

단위 : ha

資料 : 涯月面事務所提供

1977年 12月 31日 現在

年度別戶當所得

<表 10>

涯月面 納邑里

1970年	1976年	1977年	1978年(예정)
769	1,356	1,447	1,853

단위 : 千원

資料 : 涯月面事務所提供

1977年 12月 31日 現在

納邑里 새마을사업은 他部落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進行되어 왔다.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

年度別새마을事業實績

<表 11 >

涯月面 納邑里

연 도	1971	1971	1972	1972	1973	1973	1974	1975	1976	1977
사업명	안길 포장	하수구	안길 포장	안길 포장	농로 확장	세월	안길 포장	마을 창고	안길 포장	안길 포장
사업량	400m	446m	1957m	600m	4km	40m	430m	50평	400m	520m
사업비 (千원)	1,129	406	5,871	1,162	8,000	890	800	1,891	878	1,575

資料：納邑里事務所提供

1977年 12月 31日 現在

이처럼 잘 다져진 도로 위를 1970년부터 버스가 1일 9회 정도 다니기 때문에 제주시와 1日生活圈內에 들게 되었다.

· 특용작물로는 참깨, 맥주맥, 유채, 감자 등을 들 수 있으며, 과거에는 담배를 재배하여 良質의 담배로 유명했었으나 지금은 재배하는 농가가 없다.涯月面의 集計에 따르면 納邑里의 戶當平均所得은 1977년말 현재 1백 75만원으로 나타나 있어 農家所得의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方 言

指導教授：金 洪 植

班 員：金 智 弘 (國教・3)

高 秉 錫 (國教・2)

金 美 京 (國教・2)

邊 貞 蓮 (國教・1)

目 次

I. 身體에 관한 語彙

II. 穀・草에 관한 語彙

III. 餌에 관한 語彙

IV. 기 타

I. 身體에 관한 語彙

○머리 : 더망이・데맹이・데맹생이・대가리・대굴빡・머리빡・머리・꼴
빡째기 (대가리가 겨니 거 옛날 말이 거 그쟈 그때 촌에 소통헌 이야기로
그경주기게 대굴빡이게 머립주기 겨니 옛날에도 말아면 하여튼 지머리를 보
고 대굴빡이라도 허고 머리라도 허고 그렇게 허니까 원 게 원 어느 말이
그냥 규정이 된 말인지 걸 알 수 어습주기 겨니 원 하여간 머리빡이 마집
주게)

○머리털 : 머리터럭・머리꺼럭・머리털

○이마 : 임뎡이・이뎡이

○눈썹 : 웃눈썹

알눈썹

(그 눈썹도 저거이 그냥 난거이 아이라, 눈을 안보시기는 일을 허여. 웨

그러나 허며는 비가 오더라도 비을 바르고, 사람으 코에 대해 가지고 콧고
망에 털 뜻는 것도 그게 무장히 난거이 아이란 말여. 구둑 발르는 게란 말
여.)

○눈두덩 : 웃눈바위

알눈바위

○눈동자 : 눈공저

○눈 : 눈망둥이 · 눈탱이 · 눈통이 · 눈까리 (전 여거서 거자 눈망둥이 눈
망둥이 겨니 그거는 아마 침 옛날 이야기도 소통헌 이야깁주게, 용심 나게
곤젠 허면 눈망둥이 눈망둥이. 조끔허면 눈망둥이 까지와 불녀! 만약 이
거 머 사름 목으서 그러케 힐 필요는 업스데 만약 직 이제 우마중생이라고
허든지 어떠한 중생이 만약 그른 일을 해전 이놈 중생잇 눈망둥일 까줘야
불녀!)

○귀 : 귀

귓자락 귀알자락

귓바위 귀웃자락

귓봉

귓밧

(그거는 침 거기 농 아진 우제 그거 무슨 농 아쟈다고 그건 그 귓밧이라고
빙 일름이 아마 그건 귓밧이라 하엿던 거주.)

(귓봉 콧징허민 장수헌 다는게 장수허케라)

○코 : 콧대

콧돌리

○입 : 입부리 · 입주둥이 · 입주둥이 · 아가리

(겨니 주둥이라 하며는 즉 소통헌 말입주기. 하여튼 입주둥이 입주둥이엔
도 허꼭 입부리엔도 허꼭 그러케 허니간췌 보고도 전췌 입주둥이엔도 험
주게 물론.

입부리를 만이 씹네다. 입주둥이라 허며는 그거는 족끔 침 소통헌 이야
기가 되니가 그자 만약 침 여기 어평헌 빙이 붓덜거나 어떠한 허면 「아 이
입부리에 빙이 붓드고」 이렇게 해서 입주둥이에 빙이 붓덜다 영 허기도 곤
기는 곤지만 그건 조끔 이야기가 좀 이통한 길에 듭니다.)

○잇몸 : 닥염

(닥염은 이 아마 그 닥 솟는 곁엿주기 옛날)

○이 : 막 어금니

어금니

걸니

앞니

(닛빨 보고논 머 어금니란 거는 머 이 안쪽 잇는 어금니고 그 버금은 걸니 무슨. 걸니라고 허며는 툇기 훔쌀 이 앞이서 족뽀민니가 아마도 걸닐께라. 앞이 닛빨 두개 그전 머 그자 앞니 영 허나. 막 어금니라 형 전 어떠냐 허면 즉 막곳 어금니라 현 말이지.)

○혀 : 세

셋바닥 · 셋둥케기

셋부리

(셋둥치니까 거 셋바닥이라고 세 혀 색이 일천 천 아레 입구라. 천 일을 다 현 게라. 그 울안네. 게난 그 세 혈째가 일천 천 아레 입구 현 잔디 이 게 모든 청솔 다 혀여 입안뵈 거을. 입 안네 거를 이 세가, 입 안네 일천 일을 입에선 일을 다 현단 게라. 요렛 느려서 치를 소지허고 요레 느려서 안을 소지허고)

※ 입녁게

(입녁게란 거는 어떠냐 허면 내가 직금 저 어떻 족뽀민 잘못된 일이 잇스면 그 동네서 「애구 그 사름 이거 멧 해질 짓여. 안 땃서 그 사람」 그것이 입녁게라.

동네서 만약 알기라도 내가 즉 비교적 말잇지 즉 바른 사름인디 바르게 행했는디 즉 아 어떻 이 족뽀민 이제 그 잘못된 일이 이섯다 말이지. 게문 이 동네서 「아 그 사름 거 못 혈 짓을 해엿다 말이지. 그거 해 질 짓이어」 이것이 즉 입녁게라.)

○침 : 꿈 · 춤

니치름

○입굴레 · 입바우

○下顎角 : 어귀 · 아귀

○턱 : 턱가리 · 턱

○뺨 : 꺾뚱박이 · 뺨얹대기 · 귀야지

○낫 : 양지 · 낫 · 불기

○광대뼈 : 볼뼈

○수염 : 시엄 · 엄

○뼈 : 광 · 뼈

(족뽕 허민 양반 뼈 우려 먹나는 거마. 영 헤그네 보통 뼈엔도 허꼭 광엔도 허꼭. 광현 말이 흥쓸느진 말이라.)

목 : 야게기 · 야가기 · 야게 · 모게기 · 모가지

(옛날은 야게기 영 헤사. 아이덜코라도 「거 야게기나 밀나」영 헤도 또 츄츄츄 야가기여 모가기여 멋. 모가기엔 말이 흥쓸 우리 막음엔 느 자비어.)

○목구레광 · 술뼈

○뒷고방뒤 · 뒷꼭뒤

○총데기 풀리

○쇄골 : 골개뼈

○갈비뼈 : 갈리뼈 · 가슴뼈

늑든 갈리

원 갈리

웁 갈리

○명치 ; 멍광 · 멍치광 · 오무숭이 · 숭머리

(수멩이 그 광에 돌넛다 허여 멍광이라 허여. 그 늑이 꼭 흥 번이 아이 되메. 처음엔 느렸다가 이제는 올라 붓덜서 올라가라고. 처음은 느룻이 알레 붓던 아 이늑이 저 꺾작이 올라갓서 올라갈라고.

웁뽕현 디 이것이가 멍광이엿 허여.

오무숭이라고 아프민 이제젤 위엄현 디주게.)

○배 : 배야지 · 배때기 · 배따지 · 뱃부기 · 진배야지

(진배야지엿 현 말은 그런 말은 욱허는 말이고 느진 말게. 그자 아이라 도 부에 나민 「진배야지 다락 차 불너, 불나 불너」영 곤쥬.)

○배꼽 : 배뽕

濟州島部落誌 (Ⅱ)

○팔 : 팔

팔주설 · 팽주설

○팔굽 : 팔고비 · 팔구비 · 팔꿈

○손목 : 홀목 · 홀모개기 · 막디
홀목팡

○손 : 손등어리

손바닥

※ 엄지손가락

안주와기 · 안주애기

상손가락

노네기 · 노늬왁이

새끼손가락 · 귀오계기

※ 이녁멩그릇 · 본인그릇

눔이멩그릇

각씨그릇

밥그릇

재쫓그릇

돈그릇

○손톱 : 콥 · 손콥

○어깨뼈 : 득지뼈 · 득지팡

○견갑골 : 훈채팡

○등팡

○미골 : 샷끼또꼬망팡 · 미주팡

○때 (垢) : 테

○엉덩이 : 엉등패기 · 엉치

○볼기 : 잠지

(잇날 곤장 백 혈 때 업드려서 그 잠질 뽕렷거든.)

○허벅다리

○종지뼈 : 도광팡 · 동무리뼈 · 동머리 동뎃룻 · 도관머리 · 도게 · 독 · 왁

세 팡

(거세기 그거이 뚝로 난 겐디 이 독에 전 도관머리라 해서 허곡, 동그랑
형 전 동무리 빼라 헨디, 그제 그겐디, 동머리엿 전디 독 머리거든. 헨디
이거이 가네오네 움기거든. 이레 허문 영 폐와지곡, 이레 허른 종가지곡
이러케 된 게쥐.)

○정강이 : 성무니팡 · 성무니빼

(늑려정 성무니뻐, 뚝실녀.)

○종아리 : 주설 · 종애 · 종다리 · 톨근정갱이 · 팬다리

○복사빠 : 구마리팡

(지 마르난. 요것이가 구마리팡게.)

○허덜 낫저

○헐리 낫저

○본치 낫저

Ⅱ. 穀 · 草에 관한 語彙

○麥類 : 팡질오리 웨보리

○粟類 : 마슬이	순애실이	책미실이
개밭실이	소용실이	불그실이
청돌와리	강돌와리	고박실이
것검은조	검은생이조	노린흐린조
모인조		

○草類 : 제완지	제와르기	보쿨
즌풀	망지쿨	가스쇠
물역귀	머문당믈	석상포
개비늬	쇠비늬	춤비늬
장독쿨	톨모작쿨	가래기쿨
판정쿨	자쿨	물싸움고장
고내할미	믈시니	장납
석삼풀	감비역	소엽

濟州島部落誌(Ⅱ)

어욱	흑소앵이	왕소앵이
케성게	갯쿨	소쇠
돛소애	떡정동	어서리
밀쑤	멀릿줄	가마꿇줄
인둥줄	대속	콧고장
하늘에기	보리꿀	벤데
츠마꿇느물	스가래	
○藥草名 : 속	청공당귀	배채기
우슬	숙질	두총산
개삼동	익모초	서궁황
백지	꼭	오미저
숙지왕	청호	차전초

Ⅲ. 餅名에 관한 語彙

돌래떡	물떡	송편
밀떡	보리삼메	주먹삼메
제편떡	은절미	곤떡
스랑곤떡	동고란곤떡	새미떡
지름떡	췌기떡	빙떡
ㄱ장떡	침떡	절벤
솔벤	중게	약췌
트리췌	곤제편	송에기떡
다땃떡	솔미	오매기떡
곤침떡	조침떡	기죽떡
주에기	중디	

Ⅳ. 기 타

여기에는 本里 言衆들의 統語 記述에 注力한다.

○ 옛날 어른덜 경 곤더란다. 이제 옛 메뉴리가 무슨 아이 옛시어멍 가
마귀 낭 아잔 까옥까옥허난

「미운 메뉴리 도랑 가라, 도랑 가라.」 메뉴린 이제 「옛메누리 츠헤
로 도랑 가라」 허난 경 해연 이제 곤젠 허난 도로 저 이제 옛날 시어멍이
무슨

「예야 메뉴리야 제게 일어나라. 메뉴리 강알에 새 들었저.」
허난 줍줍허연 들었다네. 따시 이제 마당에 비가 삭삭삭 오라가난

「어머님 마당 들입서」

「느네 집인 마당 들이는 법 싯느냐?」

「예 어머님네 집인 강알에 새 드는 법 싯니까?」

경 해나나네 이젠

「아이고 너미 경 동문서답 말라.」

「산짓물랑 어디 두고 동문서답을 험네까?」

경 허난

「콩에 콩을 경을 말라. 콩에 콩 싱그지 말지.」

「밭에 콩 싱그주게. 콩에 콩 아이 싱급네다.」

경 허나네 그것도 콩을 씨어 놓고 이제 또로

「한 문제 험서.」

허고테

「흔 문제 우리 우스게 ㄹ르는 말이여. 망나니예 춤을 추민 연두 빨장
드름을 듣나. 무슨 썰불도 각각이여. 갇힌 놈 눈물기여. 독도 제 압씩
이여.」

경헤그네덜 우시거 해낫젠. 그것도 툭툭 씨 놓고 경 해난 양 멧가지 헨디
헨디, 그거 익으나네 양 소설뵈디다게. 땃 곡지 고르나네 그걸 딱 썬
걸 익으라보게. 잉는 건 보난 소설뵈데다게.

○ 거세기 잘 들이케전 나 졸아주케메, 옛날에 잇 어른덜이 저 죽엇다네
돌아 오라네 특히 문지허기를 어멍싯디 가난

「어머님 나를 웃언보난 어떻게 생각 험디가, 생각허나네 어머님은 어
뻡험디가?」

허난

「매날 원 저테 가는 똑 늘 님은 남잘 배든 느인가푸덴만 매날 날날이 생각을 나는 게 오늘 〳장을 잊어불질 아넛저.」

영 허난

「예 어머니은 날 생각을 경헙데가.」

허연 죽으난 이젠 머구낭 방장대고, 아버지신딘 간

「아바진 날 웃으난 어떻 생각이 갑뻘가?」

허난

「그잔젠 잊어부렷당도 제섯 님은 늘 님은 청년이 당허민 무지무지 생각 허기를 아 그러크시 느 생각이 나고 가장 이제 잊어분 시도 싣더라.」

허난 아바진 어머니만 못 허구나 헨 이젠 믈작 싣 대막댕일 짚언 아이구 헛저 허여. 믈작믈작헌 건, 어뎡은 「느리 믈디믈디 이상에 잊어불질 아녀라」 허난 어머니가 나 생각 더 헛고벤 고맹이 터 주니, 그 머구낭을 지푸곡, 아방을 간 믈르난 「무디무디 트난허곡 어떤 져 잊어도 부려라」 허난 그 믈작 싣 왕대 막댕이 그 믈작믈작헌 거 그거 짚우고.

○ 우리 잇날 늙은이는 사탕 훗을 때가 잊지마는

「날랑 그냥 도라. 그냥도 든디 설탕냥 무시 걸 허느니?」

영 해면, 설탕도 사탕이엿이나 흥쉴 증꿈 알아지주머, 설탕엿 허민

「설탕엿 헨 거, 거 멧고?」

맛 존 건 감주 믈든 거 헨 때 꿀 노와그네 꿀 믈레예 꿀앙 꿀 노민 잇날은 누룩이엿 헨 것보단도 감취잇 꿀이취. 우린 또 잇날은 이 수박 말도 몰르고, 수박이 웃으난 그자 웨, 제우 잇날 흥끔 침 웨엔 헨 거 스뭇 옛날은 전인 그자 보리 대송 혼 대 어정가민 걸름착으로 하나씩 저당 먹는 때에 먼 수박이 셔서. 수박이여, 사탕이여 헨 거는 이제사 나서.

○ 브름 불젠 허문 해지지 노래연다.

「노리연 브름 아이 나커라」 영 곤곡 해지기가 불거사 불거가문 비가 오키엿을 허나, 브름이 불키엿 허나 허주기. 「해지기가 궂언 비가 오젠 햄시냐? 브름이 불젠 햄시냐?」 해가 벌경허민 「아마 브름 나캣푸다. 브

름 날로구나. 해가 벌경헌 모양이 그자 경필이 브름이 부럼직허다」 영을 허나.

○ 물론 흑으로사 집이 흑질 허는 디 무슨 흑이 들 필노가 신 처레라? 아레 웃을 처레주기. 요세잇 집 짓는 딴 원 알게난 호고, 잇날 흑질 허는 건이 집을 허젠 허민 이 다 돼기라고 허영 흑질로 게백을 허느라고 흑질 허쟁 허민, 머 영 보릿낭 참 그걸 쥔 줌이영 헤 그네 보리낭 덜 허여다 놓꼭 경 허영 브르는 우제나 우엔 난 므를노고.

○ 거건 물이 크게 내나 흐르쟁 허민, 거게 내가 멀어서 여기서 이제랑 나귀 막으나도 내 터지는 소리가 야단으로 나주기. 나민 어디 저레 건너갈 처리라도 가지 말렌 호주기게. 가당 넘당 참 곳음도 햄쥬. 원 내 건나쟁 헤민 내 넘센 헤민 머로 헐 거셔? 허구 내가 워낙 켜민 넘질 아녀주. 「내 터져 베건 넘지 말라. 넘당 내에 곳으리여」 새끼 영 메여그네 이만이 허영 어머니 발을 영 허거드네 이걸 줍꼭, 내 느린 디 하시 요셋말로 하시 전인 그걸 하지 아녀난 드리 전인 드리.

○ 하이고 양, 이 수박 사당 주멍 우리 손지년이

「할마님 오래오래 삼서. 살암시난 이영 조은 꼴이 시연! 할마님 전이 잇날 이런 수박 시연 먹어놋수가?」

「아이 먹어보고라.」

「죽어도 칭원치 아녀쿠다. 이제 이곳데 도로 무스것사 날티 오래오래 삼서.」

○ 하이고, 베클 그건 하는제. 막 쉬정이 하. 앞이 꺾 돌케. 뒤엿 건 허리 안개. 베클 내리치는 몽멍이. 뒤에 꺾 미녕 감은 건 도꼬마리. 베클 뒤에 큰 도꼬마리엔 흰 것에 미녕 빙빙 감은 게 셔. 또 그 새예도 벌레도 이시꼭. 벌레 눈 띄우는 거 그 미녕 새예 놓는 거. 도꼬마리 앞이 대 하나 굴룬 거 엇헛대. ㄴ게느레기엔 것ㄴ라 곤는게 옛날 우리 어른덜사 아기엇헛대엔 ㄴ랏수다, 아귀엇헛대주마. 좃귀 이디 영 버쩔렁 영 오그렁 께는 좃구가 서, 미녕 바둑에 앞이. 영 헤사 바려져사 버쩍 미녕이 허여사 차지주게. 꼬리영 형 건 그 꼬리 감은 거 드르쳐그네 그 꼬리 일로절로 드르치멍 일로 말악 절로 말

악 허는 거, 미녕 세로 간다온다 허는 꼬리뻥이 서. 또로 새 섞으는 거 주춤.

경 허난 체염 앞으로 도꼬마리·버금 버을레·엇궤대·잉에 허난 네굿. 톨
캐 허난 다섯 굿. 골뻥 허난 요섯 굿. 보디집 허난 일곱굿. 좇귀 요덱굿. 허
리 안개. 꼬리뻥. 주춤.

베클 꿈이 시꾸아도 아주 굿입니께.

○밥동고랑엔 허 건 니그 반착허고 대차롱 이서. 머 저되도 나 밥 이제도
거런 멍기는 거 잊주머. 이제 낭 벤또주. 우리 날 달문 거 밧디 가멘 송쿠꾸
덕 이런 거 담앙 멍겨낫주.

밥동고랑은 거 약도리레 놔사 머영 멍기주기. 또시 짓에 드른 거 또 서,
장통. 동그랑을 약도리레 들이쳐동 거 두러매주기. 어디 저 산중 흐끔더레
살음 므시나 보레 가젠 헤민 약두리 허곡.

난 약도리 헤본 제 엇수다. 우리지엿 어른덜사 저 들에 멍젓수가게. 흐썰
허문 침 아이고 상교에나 맹경 저 들은 말 그게나 흐썰 영 마랏주기에.

○쇠에 싯그는 거 그거 걸름착. 혼착 두착 쉼 하나으 두착을 가로 영 싯
경 혼 바린 양짜이고 경 헨 곤곡, 외짜 겨문 외짜이고.

○게난 어디 강 마레 마라오라. 집이서도 골곡 놈이 집이 강도 이웃침이
나 강 마레서 강 마라오죄.

○오게, 잘 듣는 놈은 「잘 들압저」 허곡. 돌음박질 허당 다칭 너러지난
아이고! 저거 너러졌구렌 경 헤낫주. 그것도 재취라. 침 잘만 드리민 이
녀도 지빠그네, 하 요치룩헌 공책이나 하나 태민 「하이고, 우리 손지덜은
요거 타안!」

드람지어, 그거 말은 들어도 이 놀고 뛰는 것도 「저거 도람지 담다」 영
헌 말은 헤도, 몰라, 그런 말은 헤여 드람지 싯긴 시여. 그전 어디 내창
뜯 디 가 붓더베여. 생이 달문 게주기.

○하늘엿 들은 둥궤헌 건 돌. 돌엔 현 게주. 이젠 바로 명칭헌 돌. 천하

각국을 비추는 거 돌이엿 허고, 이진 돌. 돌광 돌이 토나주기게. 당최 뜯린 말.

○ 벨로 뜯난 말이 어십니다게. 무신 뜯 나랏말이나 아닌게 비릇허게. 마
라오주. 게메 존던 말이 이제 그냥 비릇이 존주. 벨노 뜯나질 아녀낫주. 어린
때랑 벨노 뜯난 말이 서어?

○ 떡 마슴 장만햄이사 잇날이사젠 이제 담지 아녕 이 몬 먹을 일을 이디
서 호젠 호민 큰 일이 웃느냐? 이제 만일 나가 죽어도 잇날은 「하이고, 호
정출려사컬. 마렐 마라사 혈컬. 방에에 이걸 지허사 뽀사사」 지민 영 허주
기게. 경 헤민 영 마다들엉덜 허민 영 허민 못 허여도 이 호 녀으론 영 호 호
생덜이사 「하이고, 아무디 할망 죽엇젠 헤라, 할앙 죽엇젠. 해에 우리 인
척 가살로구나」 영을 허나.

○ 이 가마권 놀젠 허민젠 으렌 느랜 파닥파닥해사 놀주, 니영사 놀아져?
게메 이젿 사름덜은 신법으로 놀개엔 헛주마는, 우린 경 아이 마라그네, 이
잇 할망덜은 가마귀 소르기 상이 영만 헤나 난에 그 문투를 몰르주게.

○ 그 때엔 「성현 거 사오라저라. 무리지 아년 성현 놀케기」 아 게메 싱
싱현 건 허고, 싱싱 아년 건 「해이구, 거 무린 상이여」 쟁이나 존주, 멧
셴 허여. 싱싱현 건 머 요세엿 말로 「애 놀거 이거 성허여서라. 아 이거 놀
게라고 놀게기도 이거 성헤엇더라.」 요세엔 싱싱행이쥐, 잇날은 그런 말이
우리 아녀밧주기.

○ 무사 몽케염시니? 호저 제게 호주기. 멧을 경 몽케느니?

○ 마을 들문젠 그걸젠 몬딱 집더래 허여 오젠 헤민, 마을든 거 건 하주게.
콩이던지 마슬커 허여오라 영.

○ 스삼스건 나나건 디가 삼십 호 스년 되감쥐.

○ 과납이라고 옛날은 헤낫수다. 전 어째이 과납이라고 허느냐 허면, 그

옛날은 과거가 만이 나니까 해서 그냥 과납이라고 이렇게 해는디, 너무 과거가 만이 나가니 옛날 그 첨 관가으서 — 만약 관가라고 하면 직금 관청입 주기 — 관가으서 아마 못 쓰것다고 해서 「나뭇이라고 해 인명을 고쳐볼라」 이렇게 해서 직금 나뭇이라고 고쳤다고 하여.

民 謠

指導教授 沈 汝 澤
金 榮 敦
班 員 金 奉 玉 (國教・3)
吳 仁 子 (國教・2)
朴 永 信 (國教・1)

目	次
I. 童 謠	II. 勞 動 謠

納邑里는 古來로 班村的 性格을 띠고 있으므로 民謠調査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곧 住民들은 漢詩나 時調를 즐겼지 民謠唱은 아예 輕視하는 傾向이 짙었다.

짧은 調査期間이었지만, 勞動謠와 童謠에 力點을 두어 採錄했다. 물론 錄音을 통해 筆寫한 다음, 모호한 부분은 再確認을 거치기도 했다.

珍重하게 伝承되는 ‘불무노래’, ‘나무 베는 노래’ 등을 얻을 수 있었음은 羨望은 수확이었다.

I. 童 謠

1. 평 노 래

1 - 1 평평 장서방
콩흔사발 주마
이리 오너라

(김인창, 男・53)

- 1 - 2 꺾꺾 장서방
어찌어찌 살amna
스돌 좇어먹엉 살암저

(김정출, 女 • 65)

- 1 - 3 꺾꺾 장서방
어찌어찌 살amna
삼년묵은 콩그루에
콩방울 좇어먹엉 살암다

(강신열, 女 • 61)

- 1 - 4 꺾꺾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삼년묵은 콩흔방울
오년묵은 콩흔방울
좇어먹곡 그럭저럭 살암저

(강월선, 女 • 64)

- 1 - 5 꺾꺾 장서방
어찌어찌 살amna
이리저리 돌아다니 명 살암다
뿔먹고 살amna
삼년묵은 콩그루에
콩흔방울 좇어먹언 살암다
귀체ㄴ뽀 도독눔은
날잡으레 오랍구나
콩흔방울 물엇더니
귀체ㄴ뽀 도독눔은
날잡으레 왓구나
[장꺾은 영호연 죽엇쥬]

내서방 어디가시고
울멍댕기단 보난
까마귀놈은 나영 흙피 혼디살자
아이고 내몸은
곱기도 곱다마는
늑몸은 짐기도 짐다
메가완 나영 흙피 꺾살자
내몸 봐라
얼메나 풍신흔가
내저드렁이에 안겨만봐라
얼메나 풍신흔니
내몸은 곱기도 곱다마는
늑몸은 밍기도밍다
나저드렁이에
콩흔방울 물엇다 먹으믄
얼메나 고우니
아르릉 따르릉

(강정임, 女 · 60)

2. 까 마 귀 노 래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간 오람디
할망집의 불담으레 간오람저
무신밥 줘니
자골밥 줘라
무신장 줘니
자골장 줘라
무신수까락 줘니
가마귀수까락 줘라

濟州島部落誌 (Ⅱ)

어디누렌 ㅎ여니
선반우의 누렌 ㅎ여라

(강정임, 女 · 60)

3. 술개 뜯 것을 보며

3 - 1 소로기 뱅고로로록
뱅뱅돌라 뱅고로로록

(김춘희, 女 · 42)

3 - 2 똥소로기 뱅고로로록
빙아기간되 엇다

(강정임, 女 · 60)

3 - 3 똥소로기 읍드자
빙아기간되 엇고
무전기차 떠나자
임간되 엇다

(김복순, 女 · 60)

4. 그 시렁 독새

큰년아 멩지훈필 ㄹ져오라
늑네아방 ㄹ정그네 서월강
베닷필 ㄹ정오건
늑허꼭 나허꼭 ㅎ영입게

(강정임, 女 · 60)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

5. 감자리를 잡으며

5 - 1 앓아난 방석에 앓으라
곤밥누넝이 주키여

(고홍준, 男 · 16)

5 - 2 밥주리야 밥주리야
앓아난방석에 앓으라
고치밥ᄇᆞᆫ영 주마

(김인창, 男 · 53)

5 - 3 총총 밤버리
앓아난방석에 앓아시라
곤밥누넝이 굶어당주마

(강정임, 女 · 60)

6. 매미를 잡으며

6 - 1 주얼재열 느려오라
개똥범벅 뽕똥범벅 ᄇᆞᆫ영주마

(김순경, 男 · 33)

6 - 2 주얼재열 느려오라
개똥범벅 ᄇᆞᆫ영주마
쉐똥범벅 ᄇᆞᆫ영주마

(김인창, 男 · 53)

6 - 3 재열주열 느려오라
개똥범벅 뽕똥범벅
ᄇᆞᆫ영ᄇᆞᆫ영 주마주마

(김상영, 男 · 19)

濟州島部落誌(Ⅱ)

6 - 4 주열재열 느려오라
내려오른 곤밥누넝이
굶어당주마

(문춘자, 女 · 16)

7. 풍뎡이를 가지고 놀며

7 - 1 빙빙 돈다
ㄴ레 곶아 줄레

(진석진, 男 · 15)

7 - 2 빙빙돌라 빙빙돌라
ㄴ레 ㄴ레 돌라
마당쓸라 마당쓸라

(문양숙, 女 · 16)

8. 개똥벌레를 잡으며

불란지 꿀꿀
불란지 꿀꿀

(진석진, 男 · 15)

9. 방아깨비를 잡으며

9 - 1 춤추라 춤추라
늑네 어멍싹의 돌앙가마

(강신열, 女 · 61)

9 - 2 춤추라 춤추라
싹방말축 춤추라

(김인창, 男 · 53)

- 9 - 3 신방말축 춤추라
신방말축 춤추라

(김춘희, 女 • 42)

- 9 - 4 춤추라 춤추라
네미네비신의 돌아다주마

(김복순, 女 • 60)

10. 뱀을 보며

- 10 - 1 느네어멍 칼ㄴ정
죽이레 감저

(고개출, 女 • 16)

- 10 - 2 칼굴라 도치굴라
훼헤영 먹게

(김인창, 男 • 53)

- 10 - 3 칼굴라 도치굴라
네미네비 늑잡으레 오람저

(김복순, 女 • 50)

- 10 - 4 혼저혼저 기여들어불라
앞집의사름 칼굴앙 완저
뒷집의사름 호미굴앙 완저
혼저혼저 기여들어불라

(강신열, 女 • 61)

11. 거미를 보며

거미거미 황거미

濟州島部落誌 (Ⅱ)

지겟가지 독딱섬이

(강정임, 女 · 60)

12. 울던 애를 놀리며

12 - 1 호여 호여

울단 장콜래 비여

장훈사발 쥬

늑영나영 갈랑먹어 불게

(강신열, 女 · 61)

12 - 2 울단 장콜래비

장훈사발 줍서

가심아래 뱃 낫수다

(김복순, 女 · 56)

12 - 3 울단 장콜래비

오좁훈사발 거러먹꼭

똥훈사발 거러먹꼭

불견 황앗앙 강굴락강굴락

(강정임, 女 · 60)

13. 머리 깎은 애를 놀리며

13 - 1 중중 까까중

얼마쥬 까짫나

일원쥬 까짫다

아이그 비싸다

텅그르르릉

(김영탁, 男 · 15)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

13 - 2 중버레기 상버레기
모진년의 X 버레기

(강정임, 女 • 60)

13 - 3 중버락 상버락
모진년의 X 버락

(강월선, 女 • 64)

14. 이 빠진 애를 놀리며

늑빠진 하르방
늑빠진 할망
우리 밧되 무사 담멜랏나

(김상영, 男 • 19)

15. 싸울 때 상대방을 놀리며

신착 고리착
신착 고리착

(진석진, 男 • 15)

16. 원님 놀이하며

16 - 1 멩기멩기 주멩기
신체기 열석냥
까마귀야 노루야
방구야 똥땡

(양성립, 女 • 15)

16 - 2 혼다리 인다리

濟州島部落誌(Ⅱ)

거청 대청

원님 스설

행정 밧뒤

기둥에 청

(강신열, 女 · 61)

16 - 3 혼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원님 스서

골메꼭지가

통개 통

(강정임, 女 · 60)

16 - 4 혼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원님 스설

돌메꼭지가 돌개

통

(김복순, 女 · 60)

16 - 5 혼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이월 내월

상짚밧뒤

버드낭에

월령 철령

기둥에 척

(강정임, 女 · 60)

16 - 6 혼다리 인다리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

거청 개
시자 노자
물막개
집태기 영장나
가마귀야 노루야
빵구야 똥깨

(문양숙, 女 · 16)

16 - 7 훈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원님 서설
구월 나월
아롱다롱 고냉이

똥

(진희원, 女 · 16)

17. 쇠비름뿌리를 두드리며

17 - 1 불싸라 불싸라

남방에 불싸라
살테 왕에 불싸라

(강신열, 女 · 61)

17 - 2 불싸라 불싸라

던덕퀘기 피어나라
뽕퀘기 피어나라
득퀘기 피어나라

(강정임, 女 · 60)

17 - 3 동데레 불싸라

서테레 불싸라

(김복순, 女 · 60)

濟州島部落誌(Ⅱ)

18. 몸에 물기를 말리며

18 - 1 물하르방 털어지라
늑영 나영 갈랑먹게
[되풀이 됨]

(진석진, 男 · 15)

18 - 2 물하르비 털어지라
물하르비 털어지라

(강신열, 女 · 61)

18 - 3 물하르비 털어점저
물하르비 털어점저
늑영나영 갈라먹게

(김인창, 男 · 53)

19.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며

멀리멀리 가라
나춤 바꾼되꺼지 가라

(김인창, 男 · 53)

20. 흙장난하며

고방갈락 고방갈락
늑영나영 흥여먹게

(김순경, 男 · 33)

21. <도롱이>를 낚으며

도롱이야 도롱이야

나오라 나오라
앞बाट शे दुलंग
बोरी दाढकअज
ढूढाढू दुलंगने
बोरी दाढकअज

(강정임, 女 • 60)

22. 語 戲 謠

저 산에 구박구박 흥는거 머꼬?
구박구박 흥는건 미배쟁이여
미배쟁인 희다
희든 할애비여
할애빈 등굽나
등굽으든 췌질매가지여
췌질매가진 니고망난다
니고망나든 시리여
시린 겐나
겐으든 가마귀여
가마귀 늑든다
늑드든 신방이여
신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든 철쟁이여
철쟁인 줍찢다
줍찢든 강이여
강인 불나
불으든 대추여
대추 돈다
돈든 옛이여
옛은 흘튼다

홀트몬 지래기여
지래긴 보리먹나
보리먹으몬 췌여
췌 뽕돈나
뽕돈으민 깡죽이여
깡죽은 똥다
뛰는건 벼룩이여
벼룩은 딱

(강신열, 女 • 61)

23. 其 他

23 - 1 니 이정시
벼룩 벤자쉬
꼭리 귀찰귀
모기 처동장

(강월선, 女 • 64)

23 - 2 험벅눈은 퍼뜰퍼뜰
스락눈은 스락스락
서월곳은 덩덩
담고냥은 비릉비릉
할망×은 삐죽삐죽
하르방×은 대뽕대뽕

Ⅱ. 勞 動 謠

1. 맷돌·방아 노래

1 - 1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울멍밥은
무정 혼전

손으로 먹었
성아니 지리어

밤이 새날
주억 삼메
흐나이 랑
흐나이 랑
두개 랑그네
흐나남은전
흐착씩에
이어이어

밀닷말 골안
다섯이 더라
시아버님 드리고
시아머님 드리고
시동생 주난
둘로 노닐
마기로 구나
이어도허랑

(황신봉, 女 · 59)

1 - 2 이어이어
나놀래 랑
이어도허랑

이어도허랑
산넘영 가라
이어도허랑

어떤 사람
고대광 실
영화로 왕
살아나 볼까
가난 하고
초저리
나혼재
이어도허랑

팔재나 좋앙
노픈집에
희락화락
이내 몸은
서난 혼
비막사리에
남 방에
이어이에 이어도허랑

(강정임, 女 · 60)

1 - 3 이어놀래
이어이어
이어허민

마장은간다
이어도허랑
눈물이난다

濟州島部落誌 (Ⅱ)

우리성제	삼성제드난
웃쑈콜도	새글럼서라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하늘왕제	죽은꼴드난
웃쑈콜도	잘맞암서라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고송옥, 女 • 83)

1 - 4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날랑죽거던	닥밧되문영
그위에랑	춤버드낭나라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독은울민	날이나샌다
내사운들	어느날새리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요ㄱ레랑	질긴냥말라
노각ㄱ튼	나어깨로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총각차라	물에나들게
양석싸라	섬이나가게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나놀레랑	산넘영가라
산도물도	지넘영가라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놀렌부르민	산이나넘나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흐를즈낙에	밀닷말골안
주억삼메	다섯을허연
시누이는	식개를주꼭
어멍아방	하나씩드련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강선녀, 女 • 65)

2. 김매는 노래

사대불령	훈멍에가게
여기요랑	사대로구나
검질짓꼭	곶늦인밭딕
훈꺼번에	열내멍메자
어화낭천	사대로구나
총각차라	물에나들게
양석싸라	섬의나가게

앞멍에랑	들어나오라
뒷멍에랑	물러나나라
어는제랑	앞멍에가코
사대불르멍	앞멍에가게
일천제미	제미도아니여
요검질랑	질긴냥말라
버석버석	메여나가게
사대불령	앞멍에가자

검절손에	나가는꼭석
마누라손에	나가는아기
홀수엣다	어찌나허리
어화낭천	상화로구나

독은올민 날이나샌다
내사운덜 어느날새리 (강월선, 女 · 64)

3. 밭 밟는 노래

3 - 1 어랑이어 어려들들들 어랑이어 밭을볼려보자 요몽생이덜 이
레빙빙 돌라
요몰저 몰덜 요몰트멍 저돌트멍 즈근즈근 볼르라보저
조밭되 조볼리거든 입흐라근 구름개낭ㄴ찌 잘도낭 좋아가라
어랑이어 어려돌돌돌
(강만방, 男 · 65)

3 - 2 어랑러러려 요므시야 저므시야 노픈되랑 야픈되로 신난되 개
난지랑 즈근즈근 볼르고 영허영 놔두민
곡석이랑 허건 낭그랑 불미똥곡 입흐랑 어령지여
요름이랑 구슬요름 췌요름 천석만석 재겨줍서 어랑 어려 돌
돌돌
(황신봉, 女 · 59)

3 - 3 어러이어돌돌돌 요놈으 송아기덜 요레저레 볼려그네 나 스
리에 밭을 잘 볼리라 어려어려 돌돌돌
요조팓 볼리언 조나나거든 마깨만씩 덩드렁만씩 송년들게
말앙 풍년이나들영 모던인민덜 잘살게 흥여줍서 어려어려 돌
돌돌
요송아기 저송아기 혼저혼저 걸으라 오춤도싸멍 걸류고 똥
도싸멍 밭을볼류멍 혼저혼저 볼류멍 걸으라 어려어려 돌돌돌
요송아기 저송아기 자곡자곡 젓인자곡 볼려그네 풍년지세나
살레오건 인민덜 잘살게 협서
제석할머님 요밭되 곡석이나종앙 잘 똥게나 흥여 줍서 어
려어려 어령돌돌돌
(박문찬, 女 · 54)

4. 타작 노래

4 - 1 에야도홍
요마당질
에야홍
상반툇은
에야도홍
얼싸절싸
에야데야

폴딱지를
에야홍
삼각수를
떼려보자
중대배똥
폴딱지를
와상파상
에야도홍

이어홍
떼려나보자
어야홍
엇인냥살자
홍애로다
가달춤나네
홍애로구나

견으멍잡앙
에야홍
거시리면서
떼려보자
하늘배왕
거두잡으멍
떼려보자
이어홍

(강순정, 男 · 77)

4 - 2 에야도홍
즈깁이에
요도깁이로
에야도홍
요발저발
요보리나
에야도홍

요내기신
어느때나

어야홍
독새기 품지말앙
요보리나두드리자
어야홍
달쌈달쌈 들러귀멍
물착물착 두드려보자
어야홍

놔두엇당
써먹으려느냐

濟州島部落誌 (Ⅱ)

요보리에	애끼지말앙
어깨힘을	노리곡
요보리나	테작혀여보카
에야도홍	어야홍
죽깁이에	독새기품지말앙
요번보리에	두드려간다
보린그만허난	반이상을 뚝려나진다
에야도홍	어야홍
요도깨 저도깨	불써허난
보리는잘도	두드려진다
에야도홍	어야홍
요소리엔	저소리엔
요보리는	물착물착 잘돌아간다
에야도홍	어야홍 에야도홍

(박문천, 女 · 54)

5. 흙다지는 노래

[各行이 끝날 때마다 '에 달고'라고 후렴구가 따른다]

요곡괭이로	다려보자
춤을추고	다려나보자
산수가천	요방에지천
저수지에	물앗일러면
춧돌잘싸야	물늑려간다
흙덩이만씩만	잘다려보자

요곡팽이로	복사지게
물앗져서	백성덜먹자
저수지가	잘뵈랴하면
흑을잘싸서	잘다려주소
적켜서놓을	다버려두고
흑을잘다려	소도를허자

(강순정, 男 · 77)

6. 나무 베는 노래

6 - 1	허어들럼마	덜렁이야
	버꼭새도	놀고가듯
	허그도치	잘도든다
	허둘러메여	덜렁이야
	요나무덜	지워간다
	허둘러메여	덜렁이야
	주적새도	놀고가라
	허이얼싸	놀선도치
	허둘러메여	덜렁이야
	요산중에	놀단낭은
	요도치에	지어간다
	어얼싸낭도	잘도난다
	버꼭새도	놀고가듯
	퍼뜰퍼뜰	잘도든다

(강순정, 男 · 77)

6 - 2	영등산에	적설남뵈자
	요낭저낭	춤낭비게
	영등산에	적설남뵈자
	요낭저낭	새앗앙 우는낭

요낭저낭 다비어 녹지자
춤 비영 보난
상가지가 하영남앗구나
요낭 베불자
여기여차 두디려메영
두번에도 못끄쳐가는구나
어기여차 두림아
으여차차 다누어 간다
요낭꽃어 내알로구나
요낭저낭 꽃어내어 가는구나
어평허영 꽃어내어봅서
한라 산으로 느려오는 낭이로구나
요낭 꽃어내자
으여차차차

(황신봉, 女 · 59)

7. 불 미 노 래

불미불영	담배나먹자
슬금슬금	잘도나분다
푸뜰푸뜰	불어보자

요총각덜	들어나보라
요처녀덜	들어덜보라
요불미를	잘불며는
헛불미도	잘도뵈다
처녀호쌍	춤추니
불미청탁	잘맞아간다
식식푸우푹	식식푸우푹

불미불영	담배먹단
요불미에	손등이덴다
식식푸우푹	식식푸우푹
얼싸절싸	잘도나분다

노래에	숫불미쉐늑나
얼싸절싸	잘도나분다
식식푸우푹	식식푸우푹
잘도부니까	청탁맞네

요불미를	불어나보자
숫을지어	밥허영먹게
항곡이지어서	살통에넣게
식식푸우푹	식식푸우푹
아고청탁	잘도맞나

(강순정, 男 · 77)

唱 者

김인창(男 · 53)	진희원(女 · 16)
김정출(女 · 65)	황신봉(女 · 59)
강신열(女 · 61)	고농옥(女 · 83)
강월선(女 · 64)	고홍준(男 · 16)
강정임(女 · 50)	김순경(男 · 33)
김춘희(女 · 42)	김상영(男 · 19)
김복순(女 · 60)	문춘자(女 · 16)
강선녀(女 · 65)	진석원(男 · 15)
문양숙(女 · 16)	강만방(男 · 65)
고개출(女 · 16)	박문찬(女 · 54)
김영탁(男 · 15)	강순정(男 · 77)
양성님(女 · 15)	

說 話

指導教授	梁 重 海	
	金 時 泰	
	金 永 和	
班 員	梁 政 植 (國教・2)	
	金 奉 源 (國教・1)	

目	次
I. 地名 說話	III. 孝子・烈女 說話
II. 人物 說話	IV. 其 他

I. 地名 說話

1. 里名 “納邑”의 由來

옛날에는 ‘곽남이’ ‘둔덩이’ ‘곰팡이’ 세 부락이 따로따로 設村되어 떨어져 있다가 차츰 한가운데로 모여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마을 이름을 ‘郭南里’로 하였다가 後에 ‘科納’으로 고쳤다. ‘郭南’이 ‘科納’으로 고쳐지게 된 과정은 ‘郭南’의 ‘南’을 ‘앞’으로 새기고 ‘곽앞→관앞→과남’으로 되었다고 說明하는 古老도 있다.

이 ‘科納’은 科擧와 결부시켜 說明되어지기도 한다. 곧 ‘科納’은 ‘科擧가 들어오는 部落’이라는 뜻으로 너무 特別하여 다른 마을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할 것 같아서 牧使가 ‘納邑’으로 고치게 하였다.

또한 北쪽에는 ‘과오름’이 있고 北東쪽에는 ‘高內峰’이 있어서 高內峰으로는 新官이 들어오고 과오름으로는 舊官이 나간다 하여 예로부터 벼슬과는 인연이 깊은 ‘官村’으로 불리워 오고 있다.

한편 風水說로는 이 마을의 땅모양이 방석과 같이 생겼는데, 가(邊)는 銀으로 둘러지고 가운데는 짚으로 되어 있어, 예로부터 가(邊)가 繁盛했다는 얘기가 전해 오고 있다.

2. 岳樂泉 (샘)

마을 北쪽에 ‘岳樂泉’이 있다. 예로부터 이 마을에서는 물이 貴하여 生活에 어려움이 많았고, 물때문에 官이 들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많은 精力과 時間을 쏟지 않으면 안되었고, 거기에 얽힌 사연도 많다.

한번은 珍島 사람 韓洙泰라는 地官을 請해서 우물을 開發하기로 되었다. 그는 과오름(마을 北쪽에 있는 山)을 가리키며 여기를 세 길만 판다면 물이 나올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住民들은 여러 날을 걸려 열심히 땅을 팠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 물은 나오지 않았고 住民들의 입에서는 地官을 욕하는 소리가 높아, 마을에서는 그에게 돈 오십냥을 주어 보내 버렸다.

後日에 여기에는 큰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이게 되었는데 그것을 岳樂泉 (샘)이라 하여 오랫동안 住民들이 食水로 利用하였다.

3. 우랑새미

‘우랑새미’라고 하는 奉天水가 있는데, 이 물은 陸地에서 귀양온 金氏姓을 가진 사람이 왔다고 한다. 그는 身體가 매우 건장한 사람으로 하루는 官員들이 와서 巡歷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앞으로 옷을 입지 않은 채 말을 타고 지나쳤다. 사또가 그것을 보고 “아이자식이 다마는 禮義가 없으니 꽤 씹하다. 당장 잡아 들이라.” 하고 秋霜같은 命令을 내리자, 官員이 그를 잡으러 뒤쫓았다. 다급해진 그는 손을 내저어서 官員을 말에서 떨어뜨리고 멀리 달아나 버렸다.

막상 달아나긴 했으나 갈 곳이 없어 지금 우랑새미가 있는 곳에 이르러 말에게 먹이기 위하여 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곳에서 三年 동안이나 살다가 官員들이 다른 마을로 가버리자 마을로 내려와 住民들에게 알리고 그곳에 새로 牛馬를 먹일 물을 파게 되었다.

4. 寅葬卯發之地

邊興德은 이 마을에서는 두 번째로 登科한 분으로 벼슬이 玉堂에 까지 올랐었다.

그 때에 陸地에서 온 秦居士라는 분이 興德을 뵈러 왔다가 권장이동산 뒤에 있는 寅葬卯發之地(원래는 寅葬卯發福之地: 寅時에 葬하면 卯時에 發福하는 좋은 산터)를 興德의 神墓之地로 봐주었다.

그런데 興德네 집에는 姜氏性을 가진 머슴이 어미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머슴이 郭南밭에 牛馬를 놓으러 갔다가 마침 돌담에 의지하여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를 깨우려고 발로 찼던 것이 그만 그 사람이 의지했던 담을 무너뜨려, 잠자던 사람이 깔려 죽게 되어 머슴은 殺人罪로 官家에 잡혀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 머슴의 어미의 병이 위독하여 興德은 손을 써서 머슴이 使令들과 같이 집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어머니는 죽어버렸고 興德은 自己에게 열심히 일을 해준 머슴에게 寅葬卯發之地를 墓地로 쓰라고 선듯 내주었다. 葬地를 마련한 머슴은 葬事를 지내게 되었는데, 장사날 興德은 머슴에게 銘旌을 내버려두고 가라고 일러 주었다. 머슴은 그 말대로 하여 葬地에 가서 下棺을 하려고 보니 銘旌이 없이 下官을 못하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집에 가서 銘旌을 가져 올려고 머슴이 나서자 使令들이 같이 따르려 한다. 興德은 “父母님 葬事 지내는 놈이 도망갈 리가 있겠느냐?” 하였다. 使令들은 쫓기를 그만 두었고 머슴은 이 틈을 이용하여 金穴地境의 ‘알곶’이라는 곳까지 안전하게 도망을 쳐서 굴을 찾아 隱居하였다.

하루는 어떤 女人이 지나다가 같이 살자고 청했다. 머슴은 은근히 마음이 쓸렸지만, 罪지은 몸이라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女人은 自己도 媼家를 背反하고 親庭에서 쫓겨나 罪지은 몸이라 하였다.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 뜻이 맞아 같이 살게 되었다. 農事를 짓고 牛馬를 길러 잘 살게 되자, 돼지를 잡아 婦人의 親庭에도 보내어 婚姻 승낙을 받고, 다리 한 쪽과 탁주를 준비하여 興德을 찾아갔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자 興德은 매우 반가와 그 동안의 經緯를 묻고, 선물로 암소 한 마리를 주었다.

그 後 세월이 흘러 世上이 바뀌자 이제 숨어 살 必要가 없다는 생각을 하여 ‘골왓’이라는 풀밭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農事를 지어 큰 富者가 되었고, 後孫들이 번창하였다.

5. 唐陵

郭오름 한가운데 위치한 무덤이다. 唐나라 太子 一行이 이곳에 왔다가 太子가 죽으니 거기에 葬事지낸 것으로 傳해지고 있는 곳인데, 이 部落에서 제일 오래 된 무덤이라 한다.

唐의 太子가 이 마을에 온 理由는 確實히 알지 못하나, 一說에는 不老草를 캐러 왔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物件들을 貪낸 마을 사람들이 죽여 버렸다고도 한다.

客地에서 죽게 된 太子는 自己의 이름 석자를 써서 바다로 날렸더니, 本國에 다달아 中國(唐)에서는 보복하려고 一行이 이르렀으나, 산터가 너무 좋아서 마을에 被害를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갔다 한다.

後日, 岾지에 사는 金氏姓을 가진 사람이 그 위에 墓를 썼는데 상주들이 꿈에, 죽은 太子는 발이 틀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墓를 파보니 시체의 무릎뼈가 부서져 있어서 앞쪽으로 移墓하여야 했다.

한편, 그 무덤이 唐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卽, 사또가 巡歷을 다니면서 處女를 데리고 다니다 죽으니,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唐陵이라 했다고도 한다.

6. 열희울

‘열희울’은 바리에오름 뒷쪽에 位置해 있는데, 밤마다 사슴이 와서 질퍽질퍽한 흙에 性器를 꽂았다.

소길(마을이름) 사람 朴氏는 그 말을 듣고는, 사슴을 잡으려고 활을 준비하여 거기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동쪽에서 우는 아기를 업은 女子가 가까이 다가 오더니 “이놈의 아들 여기왔구나. 집이 불타고 세간이 없어져 못 살게 되었는데도, 한가히 여기 와서 사냥만 하고 있으면 살아지겠구나.” 하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니 자기 婦人이었다.

그러나 朴氏는 깊은 밤중에 婦人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 妖物임에 틀림없다 생각하고 “이년／＼ 못 생긴 년／＼” 하여 활로 쏘아 죽은 것을 보니 꼬리가 아홉개나 달린 여우였다고 한다.

7. 錦山公園

마을 南쪽에 錦山公園이 位置해 있다. 이 곳에는 常綠樹가 ㅼㅼㅼ히 들어서 있어서, 한여름 部落民이나, 外部에서 찾아 온 사람들의 좋은 休息處가 되고 있다.

옛날에는 이 곳을 禁山이라 하여 사람들이 山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한다. 왜냐하면 錦山에 돌이 많아 보기 흉한 돌들을 보면 災殃이 온다 하여, 돌들을 가리기 위하여 나무가 울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봉우리에는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다른 곳에서 들어 오는 災殃을 막는 구실을 하는 것이라 한다. 實例를 든다면 마을 南쪽에 金穴봉이라는 山이 있는데, 이 山의 봉우리가 어둑어둑 보이면 災殃을 맞아, 火災가 빈번하였다고 하며, 이 金穴봉이 비치는 무덤에는 이 金穴봉 봉우리가 패인 것과 같이, 무덤이 패이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큰 소나무가 金穴봉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일찌기 納邑國民學校를 지을 때에도, 다른 나무들은 베어 썼으나, 이 소나무만은 베지 않았다 한다.

Ⅱ. 人物 說話

1. 名筆 金龍徵

예로부터 科擧를 숭상해 온 이 마을에서는 文武兩科에 登科한 훌륭한 人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中에서도 特히 글씨를 잘 써서 出世한 사람이 바로 金龍徵 先生이었다.

先生은 어려서 故鄉을 등지고 충청도 무안에서 글씨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하루는 그가 공부하는 방에 어떤 글장이가 찾아와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글방 주인은 先生을 추천하였다.

그가 글장이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글장이는 비스듬히 누운 채 있었고, 先生이 다가서자 일어나지도 않고 “어디 살아?”하고 물었다. 뜻하지 않은 푸대접을 받은 先生은 약간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억누르고 “濟州에 삽니다.” 하자 글장이는 반대편으로 돌아누워 버렸다.

옆에서 이 光景을 보고 있던 主人이 하도 안타까와 先生에게 紙筆墨을 내놓으며 글씨를 쓰라고 하였다.

한 귀절 쓰고 나니 “名筆일세”하고 主人이 감탄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글 장이가 옆눈으로 그 글을 보고는 “濟州 아니지?”하며 先生을 다시 보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같이 공부하여 科擧를 치르고는 進士가 되었으며, 성안, 정의, 대정 등 세 鄉校의 訓長을 지냈다.

또한 그는 賢人으로서 性質이 매우 어질어, 자기 집 종이 잘못했을 때 보릿대를 한 줌이나 잡고 때렸다가 너무 여러 대 때린 것을 뉘우쳤고, 잘못된 사람을 보고 사람 아니라고 했다가, 사람을 보고 사람 아니라고 했으니 그 보다 더한 욕이 없다고 크게 뉘우쳤다.

2. 高宣傳

약 300年前 高宣傳은 郭地生으로 納邑里的 모자라는 食水를 解決하는데 큰 貢獻을 하였다.

當時에는 人口가 別로 많지 않아 郭地에서 인부를 데려다 우물을 파야 했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을 請해다가 일을 시키고 있으니, 식사는 못 대접해도 술은 주어야 했다. 술은 몇 항아리 없고 인부들은 많아서 술이 不足하게 되어, 난처해 진 高宣傳은 술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처음 가져온 것은 너무 크다고 돌려보내고, 두번째도 돌려보내고, 세번째 사발을 가져오자 “이걸로 요만큼씩 주면 꼭 맞겠다.” 하여 그 그릇으로 술을 따라 줬더니 인부들이 다 먹고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분이 普通 사람이 아니라고 우러러 보게 되었다.

末年에는 一國의 大將이 되었다. 마침 北狄이 쳐들어오매 平亂코자 하였는데 平亂됐다는 소식을 듣고 義血이 북받쳐서 병나 죽었다 한다.

3. 玄天文

玄天文은 天文에 매우 能한 사람이었다. 그는 朝鮮 百姓이 머리를 깎을 것을 豫言했고 「掘人塚賣人骨」해야 時代가 變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별을 헤아려 中國에서는 원세계(위안스카이)가 皇帝로 들어설 것을 豫言했다.

하루는 선경이란 사람의 조부장과 산터를 보러 가는데, 도끼를 메고 山으

로 올라 가는 사람이 있었다. 선경의 조부장이 “나무나 잘 험직한 사람이여.”라고 하자 天文은 “저게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자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조금 있으려니 나무를 치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에 悲鳴이 들려 올라가 보니 방금 올라간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鬼神이 되어 있었다.

이렇듯 天文에 能通하고 豫言을 잘 했지만 그의 後孫들은 조들리는 生活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家門의 運이 다한 탓이었다. 卽, 그의 妻가 돌아가자 葬事를 지내야겠는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정시일(地官)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지 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상제니까 무슨 말이 있겠지 하고 서로 미루면서 默然하였다.

葬날이 가까와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놓고 “母喪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거냐?” 아버지가 묻자,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님께서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天文은 하도 기가 막혀 “너희들이 상주니까 나를 請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는 게 아니다.” 하고 타일렀다.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은 아버지를 請하고 구산(求墓)을 가는데, 아버지가 좀 나은 곳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떠냐 물으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좀 더 나은 곳을 가리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세번째는 아주 좋지않은 곳을 가리키자. 거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여 葬事를 치르게 되었는데, 葬事날 天文은 몹시 울었다. 옆에 갔던 친구가 “八十살에 喪妻를 했는데, 뭐 그렇게 서러워 우느냐?” 비꼬며 말하자, 天文은 “喪妻를 해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집의 運이 다 돼서 운다.” 하고는 더욱 서럽게 울며 家運이 다 되어도 어찌할 수 없는 自身을 한탄하였다.

그가 죽어갈 때 玉皇에서는 天地秘密을 露出시키지 못하도록 그에게 言語장애를 일으키도록 해 버렸다 한다.

Ⅲ. 孝子・烈女 說話

1. 烈女 李氏

15 세에 金氏 家門에 시집 온 李婦人은 20 세가 되자, 男便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各種 약과 의원을 불렀으나 모두 소용이 없고 병은 점점

惡化되자 李婦人은 마침내 自己의 손가락을 잘라 男便의 입에 피를 먹였으나, 별다른 效驗이 없이 男便은 世上을 뜨고 말았다. 男便을 葬事지낸 후에 그녀는 지아비를 따라 죽으려고 간장을 매우 많이 몹시 마셨으나 집안 식구들이 발견하여 말리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그녀는 嫗父母님을 극진히 모시고 동네 어른들을 공경하여 그녀를 칭찬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자자하였다.

또한 그녀는 養子를 얻어 훌륭하게 教育을 시켜 代를 잇도록 하였다.

2. 三旌門

新嚴(마을 이름)에 朴氏 姓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本來 양반은 아니었지만 三旌門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아 양반이 되었다.

烈女 둘 나고, 孝子가 나서 三旌인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당시의 朴氏 家에는 80~90된 老母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老妄을 했다.

하루는 朴氏婦人이 자기 집 종을 데리고 밭에 나갔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종에게 일찍 가서 저녁을 차리라고 하여 보냈다. 종은 집에 와 보니 老妄하는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갖다가 마늘밭에 오줌을 주려 하고 있었다. 얼른 달려가서 “할머닌 방에 들어 가십서, 제가 주겠읍니다.” 하자 할머니는 “아니다, 너는 가서 저녁을 준비해라.” 하며 듣지 않고 참기름을 계속 마늘밭에 부었다. 종은 “오줌을 주고, 저녁을 하겠읍니다.” 하여 가까스로 할머니를 들여 보낸 다음 참기름 단지를 갖다 놓고, 오줌을 갖다 주기 시작했다.

主人은 저녁을 차리라고 해서 집으로 보냈는데, 종은 뜻밖에도 마늘밭에 오줌을 주고 있었다. “왜 마늘밭에 오줌을 주느냐? 저녁은 했느냐?” 하고 묻자 종은 “안했읍니다. 如此如此해서 할머니께서 방에 들어가시도록 오줌 주는 체 하고 있읍니다.” 하자 그제야 主人은 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마! 내 딸 착하다.” 시어머니가 老妄을 했지만 나쁜 욕을 안 하고 곱게 방으로 들여 보낸 종이 하도 고마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男便이 들어와서는 婦人이 하는 行動을 보고 영문을 몰으니, 事實이 若何若何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고 自初至終을 말하자 男便은 부인한테 절을 했다. 시어머니를 爲하는 形相이 하도 고마와서 절을 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해서는 “저놈은 부인한테 절 하는 놈이다.”하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이 한 귀 넘고 두 귀 넘어 나라에 미치자, 조정에서는 “그거 必有曲折”해서 朴氏를 불러 “너는 부인한테 절을 했느냐?” 하고 묻자, “예, 했습니다.” “왜 절을 했느냐?” 묻자 “事實이 若何若何해서 부인이 하도 고마와 그래서 절을 했습니다.”하고 답하자 “아! 그러면 너는 孝子고 너의 妻는 烈女고, 종도 烈女다.”해서 모두 양반으로 시켜 주었다 한다.

Ⅳ. 其 他

1. 짚신 할으방

어떤 홀아방이 가난가난해 그네 삼삼천신만 삼으멍 폭는 사람이 싯덴 헤여, 이젠 그 동네 어떤 아이 새끼가 그 사름신더래 말을 하데 “나 신 곱게 혼배 삼아주민 요디 부재칫 홀어멍 언저 주취 ” 웅 하난 “아이구! 생긴년 난 거 저년 난거 신이사 혼배 삼음이 어렵느냐 마는 어뎡 행 그 부재칫 홀어멍 날 언질티?” “아니라, 신만 혼 배 곱게 삼아 주민 나 언지커라 ” 하도 하난 헛일삼아 그 홀아방이 신 혼 뺄 곱게 삼아줬주. 그영 헨 곱게 신을 삼아 주난 그놈의 아이가 신장시 할으방 마라 말을 하데, 저 그 홀어멍 조반 하래 나오라 불거드네 술째기 구들에 강 누워 십센. 아니 그 놈의 새끼 위터 혼 거라. 춤말로, 이젠 그 놈의 여편넨 조반 허래 나오라부난 창으로 술째기 들어강 늪이사 혼ersi 어려운 일이라게, 누워시난, 그 놈의 아이가 “이디 저 신장시 할으방이나 오라십디가?” “그 놈의 아들 생긴 년 난거, 무사 그 할으방이 이딜 오느니 마. 그 놈의 아들 생긴 년 난거, 킷똥배길 내후리려.” “구들에 강 보카 마썸.” “강 보라, 강 보라.” “강 보난 오스래기 누워시난 “이디 신게.” 아이고, 이젠 그 홀어멍이 겁을 내연 “이 말 누게 마라 존지 말라. 하간거 돈이영 주마, 존지 말라.” 이젠 “경 하거드네 빙떡이나 혼 차롱 마뜩 행 주민, 안 마르크라.” 이젠 빙떡 혼 바꾸니 헤연 주난, “차롱 착도 하나 주민 ” 차롱착도 하나 주난 이제 그 떡을 동네에 둔딱 아전 뎡깁명 요 아무디 신장시 할으방 하고 홀어멍 하고 혼디 살안, 떡헨 노남젠. 이제 돈

딱 노나시난, 이제 아니 살아도 얻엇쟁 소문은 날거. 경 허난 벗도 자치도 못헤연 호디 살아 부러주게.

2. 동녕바치

어느 동녕이라고 호 사람이 아방은 일찍 죽어 불고 어멍만 모성 사느디, 어멍을 집에 7만히 안져 두서 대기멍 빌어당 백영, 이제 효자엿 호느디, 그때에 그 어멍이 죽어부난 어멍 얼굴 모양으로 띄기해 가지고 땡글아서, 이제 높직호 자리로 모성, 아침인 “어머님 밤중에 편안히 주무십디가?” 호민 이 녀냥으로도 “오! 편안했다” 기영 호멍 사느디, 그 동네 부채칩이서 채를 칠랴곤 허니까 채가 엇언, 그러니 동녕네 집에 채 빌레 갔단 말여, 동녕은 “어멍보고 물어봐 빌리겠다.” 흙피기현 어멍보고 “어머니 영 정 현 부채칩이서 채를 빌레 와시난 빌립니까, 맙니까.” 했단 말여, 지말로 “그 부채칩인 채 호난 상 쓸만호다. 채 빌리지 말아라” 옹 7라된 나오란 “어머니가 채 빌리지 말레 험쑤다” 호거든 그 채 빌레간 놈은 화가 후련 나거든, 흙피기봐 가지고 물어봐 채를 안 빌련 순 고약헐, “어느 거 어머니냐?” 그러니 이 거 어머니덴 호고 흙피길 7리천, 7리치니깐 그만 그 채 빌레간 놈은 젊은 狹客, 그 흙피길 두러맨 내부찌 부렸던 모양이라, 내부찌니깐 흙피기가 약간 상해 가지고 流血이 낭자호여, 流血이 낭자호니까 동녕이 나라에 고소헤연, 그러니 나라에서 그 걸 알아 가지고 조사해서 동녕이 孝子라고.

동녕바치라 호는 말이 글로 우러나왔다 헤여

(以上 두편은 姜淳正翁(男·77))

3. 孟政丞

예로부터 “사람 삶은, 나무 돌 궁기고, 궁작새도 돌금을 먹고 산다.”(사람이 사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무 돌의 구멍과 같이 살아날 구멍이 있고, 궁작새(孔雀)도 거미를 먹고 산다)는 俗談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傳說이 있다.

麗末 맹생원이라는 이가 궁궐 밑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理致에 들어 맞는 말을 잘하고, 凡事에 能한 名人이었다.

하루는 임금님이 臣下들을 모아 놓고 “내가 한 問題를 널테니 언제까지

그것을 해결하라. 모든 사람이 서른 날을 한 달로 삼되, 나는 스무닷새를 한 달로 삼을테니, 그 理由를 解得하라” 하니 모든 臣下들이 모여 수판을 놓고 책을 뒤지고 深思熟考하였으나 別 수가 없었다.

한 臣下가 요 近處에 사는 孟生員이라는 이가 凡事에 有理하다고 하니, 그와 議論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다. 골머리를 앓던 신하들은 그게 좋겠다하여, 신하 몇 분이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으로 孟生員을 찾아갔다. 가서 임금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물으니, 孟生員은 오래 생각지도 않고 “그게 그겁니다.” 하고 간단히 대답했다. “어째서 그게 그겁니까?” 하고 신하들이 물었다. “왜 그러냐하면 三十日은 卽 두 십오일이니까 三十日입니다” 하고 자세히 말해주었다.

며칠 후에 임금님이 臣下들을 모아 놓고 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묻자 孟生員이 解得한 대로 아뢰었다. “어느 臣下가 그걸 解得했느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한 정직한 신하가 나서서 “요 近處에 사는 孟生員이라는 이가 解得을 했습니다” 했다. 임금님께서서는 하도 기특하게 여기시어 孟生員을 불러다가 그의 재주를 칭찬하고 政丞 벼슬을 내렸다.

政丞의 자리에 앉게 된 孟生員은 밑에서부터 잘 봐 달라고 올라오는 金品을 一切 받지 않았고 國祿을 먹지 않아 가난에 쪼들리게 되었다.

몇 해가 지나자 孟政丞은 정승 자리가 싫증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그래서 그 뜻을 임금님께 아뢰어 임금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政丞은 自身の 뜻대로 정승 자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政丞은 몇 해 살다가 몸이 쇠약하여 몸쓸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다. 政丞 婦人은 “우리가 政丞줄에 있을 때에도 만족하게 못 살아서 늘 굶어서 살았오. 당신이 살았을 때도 이렇게 곤란했는데, 이제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리오.” 하자 맹생원은 “사람 삶은 나무, 돌 궁기고 궁작새도 돌금을 먹고 산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고 말았다. 婦人은 앞길에 막막하였다.

그 후 中原에서는 공작새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朝鮮에 人物이 있고 없음을 시험하게 되었는데, 공작새를 살찌워 보내면 人物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 죽을 지경이 되어 보내면 人物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나무람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 새를 살찌우기 위하여 쌀밥을 해다 주고 기름떡도 해다 주고 別別 음식을 다 해다 주어도 그 새는 먹지 않고 곧 죽을 상이 되었다.

다급해진 여러 臣下들은 맹생원이 살았을 때 남긴 것이 뭐 있겠지 하고 그 婦人을 찾아 갔다. 婦人은 오랫동안 생각 끝에 맹생원이 마지막 남긴 遺言을 생각해냈다.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은 그 공작새에게 거미를 잡아다 줬더니, 무력무력 살찌서 그것을 中原에 보내니 조선에 人物이 있음으로 업신여기질 못하게 되었다.

또, 한번은 各國에 人物이 있고 없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큰 놀이를 열었다. 各國 사람들이 다 모여 들었으나 朝鮮에서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나가질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孟政丞네 동네에 술이나 마시고 그럭저럭 지내는 세 靑年이 自願해 나섰다. 나라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걱정하던 차에 기꺼이 허락하여 여비를 주어 중국에까지 보내주었다.

中原에 가서 보니 別別 노리개가 다 나왔다. 朝鮮에서도 참석은 했으나 노리개할 생각을 하지 않자, 朝鮮에서 온 사람들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이 들어와 세 청년은 무대위로 올라갔다.

자그마한 이불을 하나 달라고 해서 세 청년은 옷을 훌훌 벗어 두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은 좁고 몸은 셋인지라. 제일 이 편 놈이 확 이불을, 확 이불을 잡고 돌아 누우면 저 편 놈 엉덩이가 불긋, 저 편 놈이 이불을 감고 돌아 누우면 이 쪽 놈의 엉덩이가 불긋, 청중 속에서는 仰天大笑가 터져 나왔다.

노리개가 끝나고 “그게 무슨 노리갯니까?” 하고 묻자 “우리나라 孟政丞이 凡事에 有理했으나, 정직하여 언제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조그만 이불 하나를 덮고 여러 식구가 자면 이 편 식구가 돌아 누우면 저 편 식구의 엉덩이가 불긋, 저 편 사람이 돌아 누우면 이 쪽 사람의 엉덩이가 불긋. 그래서 그 흉내를 낸 것입니다.” 했다. 中原에서는 잘 했다고 상금, 여비를 주고, 또 그 孟政丞네 집에게도 祿을 내려 집과 밭을 마련해 주어 잘 살게 했다.

濟州島部落誌(Ⅱ)

調 査 協 助 者

高龜休(남 · 83 세)

金孟玉(남 · 66 세)

奏弘錫(남 · 55 세)

高農玉(여 · 83 세)

姜善女(여 · 65 세)

姜淳正(남 · 77 세)

金南秀(남 · 세)

信 仰

指導教授 玄 容 駿
班 員 李 雨 清 (國教・2)
秦 先 希 (國教・2)
辺 聖 久 (國教・1)

目	次
I. 概 觀	IV. 巫俗信仰
II. 部落信仰	V. 妖 鬼
III. 家庭信仰	VI. 公認宗教

I. 概 觀

納邑里는 涯月面 涯月里에서 中山間 道路를 따라 남쪽으로 2.5km 가량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다.

이 마을은 옛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李朝時代에는 많은 人才를 輩出한 바 있는 傳統的인 儒林村이다. 이런 傳統性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의 諸信仰 가운데서도 特別히 儒敎의 色彩가 濃厚한 것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 그리고 男女의 祭禮節次도 嚴格히 구분되어 行祭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特別히 他部落과 비교해서 特異한 信仰으로 <칠성코스>를 들 수 있다. 이는 儒式과 巫式의 두가지 祭儀形態가 併存하고 있는데, 本來는 巫俗的인 形態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儒敎思想의 普及과 더불어 새로운 形態의 儒式祭儀가 發生, 併存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納邑里는 오늘날까지 儒敎思想이 크게 作用하고 있어서인지, 外來宗教에 對해서도 極히 냉담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現在 納邑里에는 基督教・佛敎・日蓮正宗佛敎會 등의 공인종교가 마을에 들어설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 基督教과 日蓮正宗佛敎會가 1975 年에, 比較的 現世的 色彩를 띄고 있는 靑龍寺가 69 年에야 겨우 들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充分히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住民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들 外來宗教는 定着하지 못한 段階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 가지 關心을 끄는 일은 傳統的인 儒式觀念에 물들어 있는 中・長年層을 除外한 戰後 新世代들이 外來 宗教에 對해 好意的인 態度로 接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諸事實들을 一言而蔽之하면 納邑里는 오늘날까지 儒式觀念이 강하게 作用하고 있지만, 그러한 傳統的인 儒敎思想은 世代가 교체됨에 따라 점차 衰退해 가고 있음과 同時에 새로운 思潮, 새로운 價値觀이 새로이 定立되어 가고 있는 過渡期에 서있는 마을이라 할 수 있겠다.

信仰形態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現象들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Ⅱ. 部落信仰

1. 醕祭

㉠ 祭名 : 醕祭라 부른다.

㉡ 由來 :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이가 없다.

㉢ 祭神 : 西神, 土神, 醕神, 3 神位이다. 西神은 紅疫神, 土神은 마을의 土地神으로 村落守護神이며, 醕神은 客神으로서 人物災害之神이라 한다.

㉣ 祝文

醕祭祝

維歲次云云 幼學姓名 敢昭告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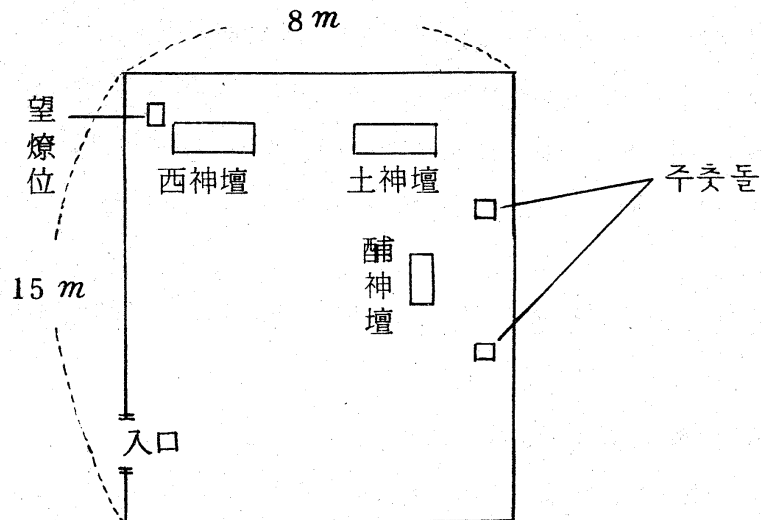
醕神之靈 伏惟醕神 除災降福 保我人民 報賽無斁

土神之靈 保良社神 惠我恩德 願賜物豐 長養壽域

西神之靈 降臨西神 善養兒輩 以賜紅疫 全然無頃

謹以牲幣 醴齋粢盛 庶品式陳 祇薦于神 尙饗

㊤ 祭場 : 마을에 있는 錦山公園 内部에 祭壇이 있는데, 그 形態는 다음과 같다.



㊤ 祭日 : 春祭, 秋祭, 年二回, 春祭는 正月上丁日, 秋祭는 七月上丁日에 行했었다. 이러다가 14~15年前에 部落會議의 決議로 秋祭는 廢止되어, 每年 春祭만 行해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上丁日에 마을에 不淨한 일이 생겨 行祭하지 못 하게 되면 中丁日로 延期하고 이날에도 行祭하지 못 할 事由가 생기면 亥日에 지내게 된다. 곧 或丁或亥로 지내는 것이다.

㊤ 管理 : 部落會議인 鄉會에서 決議 執行한다. 鄉會에는 本來 鄉長이 있어 主掌해 왔는데, 鄉長制가 없어지자, 里長이 各 理事長의 協助下에 會議를 召集하고 있다. 이 鄉會에서 祭官을 選出하고 祭費의 豫算 決算을 한다. 祭費는 마을의 基金으로 充當하나 里長, 理事長 其他 有志들의 贊助金도 보태어진다고 한다.

㊤ 祭官 : 祭官에는 十二祭官이 있으니, 곧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 大祝, 贊者, 謁者, 奉爐, 奉香, 奠爵, 司樽, 典司官이 그것이다. 獻官은 學識있고 德望있는 高齡者를 選出해 行祭해 왔는데, 5~6年前부터는 里長이 初獻官을 맡게 되었다.

執禮는 禮節과 祭法을 잘 아는 者로 選出되며 大祝은 祝을 쓸 수 있고 告할 수 있는 사람으로 選定되어진다. 小祭官은 원래 結婚한 者라야만 될 수 있었는데

現在는 未婚者도 말고 있어 별로 구애받지 않는 편이다. 이들 祭官들은 祭日 3日 前에 祭厅에 入祭하여서 合宿하게 되는데 이들 祭官이 一般的으로 지켜야 할 事項들은 다음과 같다.

- i) 行祭할 때 입을 靑衿과 儒巾을 各自 準備해야 한다.
- ii) 入祭後는 물론 그 前에도 몸정성을 하고 不祥事가 없도록 한다.
- iii) 屍體를 보지 말며 말, 개고기 따위를 먹지 말아야 한다.
- iv) 대개 음식에 對한 禁止는 심하지 않으나, 비늘없는 고기로 만들어진 飮食은 삼가한다.

② 祭物 및 陳設 : 祭物은 丙日에 準備하여 丁日 子時가 가까와지면 祭壇에 陳設하는데, 그 品目은 다음과 같다.

i) 稻, 梁, 黍, 稷의 메

이 4 가지 메를 올리는 것이 原則이지만 현재 梁과 黍, 稷이 없으므로 梁 대신 稻(쌀 메) 두 그릇, 黍, 稷 대신 차좁쌀 메 두 그릇씩을 해서 올려오다가 같은 메를 두 그릇이나 올릴 必要가 없다고 하여 쌀 메한 그릇, 차좁쌀 메한 그릇을 올린다.

ii) 犧牲

동네에서 기르던 흑색 돼지(수컷)를 選擇하여 내장은 꺼내고 털을 벗겨, 통채로 올린다. 「毛血」이라 해서 털과 피를 따로 조금 접시에 넣어 올리지는 않는다.

iii) 幣帛 : 明紬와 白紙를 쓴다. 白紙는 한 卷을 써오다 5~7 매를 올리고 있고, 명주는 석 자 두 치를 올린다.

iv) 果類

밤, 대추, 굴, 배 등 各種 實果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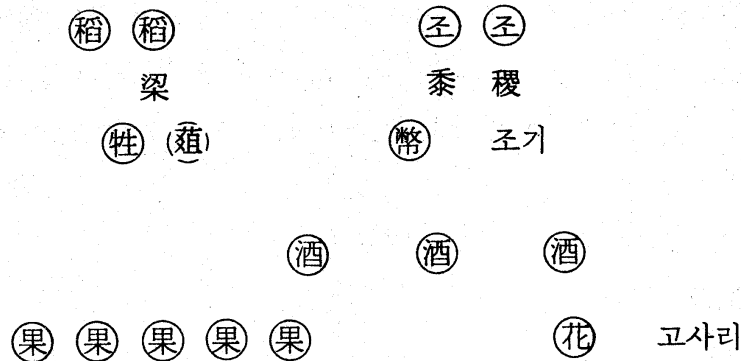
v) 祭酒 : 甘酒(醴酒)를 使用한다.

vi) 海魚 : 脯 대신 조기 말린 것을 구워서 올린다.

vii) 채소류 : 미나리를 올리는데, 그 名稱은 청근(菁芹)이라 부른다고 한다.

以上 祭物이 準備되면 다음과 같이 陳設한다.

<醕神之靈位 陳設圖>



㉔ 行祭：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祭官들이 祭儀를 舉行한다. 笏記는 鄉校의 祭儀笏記와 大同한데, 다른 점은 「摺笏 執笏」이 없고 「小退跪」가 없는 것 뿐이다. 摺笏 執笏이 없는 것은 獻官들이 笏을 들지 않고 行祭하기 때문이며, 小退跪가 없는 것은 初獻禮를 지낸뒤 讀祝할 때 初獻官이 小退跪하지 않은채 大祝이 讀祝하기 때문이다. 笏記에 따른 祭儀舉行順序는 奠幣禮, 初獻禮, 讀祝, 亞獻禮, 終獻禮, 徹籩豆, 望燎位の 順으로 他里의 一般的 部落祭의 行祭順序와 같은데, 神位가 3位이므로 奠幣禮 以下 各禮를 各獻官이 土神, 醕神, 西神 順位로 行하여 原位置로 돌아온 후 四拜를 함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리고 獻官의 拜禮는 約 10年前까지는 橫拜로 해오다가 直拜로 바꾸었다 한다.

㉕ 飲福：祭가 끝나면 마을의 使換을 시켜 犧牲으로 썼던 돼지를 잡아 祭官과 參加者들이 나누어 먹는다.

2. 祈雨祭

醕祭와는 달리 全部落이 한군데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西上・西中・西下・東上・東中・東下 6個洞別로 나누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58年前에는 當時 行政區域대로 一區 二區가 따로한 일이 있다. 祈雨祭를 지내는 場所로는 탑다운 바>이라는 곳에서 行해졌다고 한다. 이것도 醕祭와 마찬가지로 향회에서 祭官 選出, 經費 調達 관리 등을 맡아 하며 三日齋戒를 했다 한다.

<祈雨祭祝>

維歲次云云……………敢昭告于

天乎天乎 天胡不雨 葉焦枝枯 草木望雨 毛爛翰燥 禽鳥望雨 川渴澤涸 麋鹿望雨
穴焦封爛 虫蟻望雨 鱗枯鬣乾 魚鱉望雨 凡此天物 罔不待雨 矧伊人矣
萬倍待雨 朝朝暮暮 其雨其雨 今及降雨 其時時雨 雨效密雲 化爲甘雨

(靜軒金進士作)

Ⅲ. 家庭信仰

1. 土神祭

- ① 祭神：土地之神. 祭를 행할 때는 土地之神之位라는 紙榜을 써 붙인다.
- ② 祭日：陰曆 正月初에 各者가 擇一하여 祭를 지내나 時間까지도 擇해서 행하는 집도 있다.
- ③ 祭壇：新年에 집안의 편안을 비는 경우에는 後園의 깨끗한 곳에 祭壇을 만들어 行하고, 葬禮 때 埋葬 前에 지낼 때에는 墓位置에서 左로 百步以內의 평평한 곳에서 지낸다.
- ④ 祭官：學識이나 德望이 있고 祝을 써서 告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지내는데 일주일 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 ⑤ 祝文：집안에서 지낼 경우와 葬禮 때 지낼 경우 祝文이 각기 다른데 新年에 집안에서 지내는 土神祭의 祝文은 다음과 같다.

<土神祭之祝>

維歲次 某年某月某日于支 某官某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姓名 爰居茲地
永賴神德 除去千災 賜以百福 茲值良辰 感竭微誠 伏惟蔭隲 以異感應 謹以牲
幣 醴齋梁盛 庶品式陳 祇薦于神 尙饗

- ⑥ 祭物：메는 4 器를 必올려 왔는데 稻・梁・黍・稷으로 하다가 醢祭때 처럼 쌀 메 2 器, 좁쌀 메 2 器로도 한다. 혹은 쌀 메 1 器, 좁쌀 메 1 器를 쓰는 경우도 있다.

메는 낫그릇에 쌀과 물을 알맞게 넣어 솥에 얹혀 증기로 찌서 만들며, 떡도 같은 方法으로 찌는데 찹쌀떡과 좁쌀떡 2 가지가 있다. 犧牲으로는 과거에

는 돼지 머리 전체를 올렸으나 現在는 돼지 머리 반 쪽이나 수닭, 꿩 등을 쓰기도 한다. 幣帛은 명주나 시령목 3자 3치를 쓴다. 그 외에 五果, 청근(미나리), 미역채 정수(냉수) 1사발, 명태, 甘酒 등을 올린다. 단, 葬禮 때의 土神祭 祭物은 장사집에서 準備하지 않고 친척집이나 祭官에게 부탁해서 準備한다. 장사집은 不淨한 곳이기 때문에 祭物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⑦ 禁忌 : 祭日이 決定되면 祭日 7日 前에 집의 出入路에 금줄(원새끼줄)을 매어 부정한 자의 出入을 금지하고 금줄은 祭日 날 獻官이 들어올 때 풀어 버린다.

⑧ 祭次 :

- ㄱ. 祭儀는 橫拜로 行한다.
- ㄴ. 먼저 橫拜로 四拜를 한 다음 降神을 하고,
- ㄷ.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4拜한다.
- ㄹ. 初盞을 드린 다음 幣帛을 올리고 讀祝한다.
- ㅁ. 제자리에 돌아와 4拜하고 掇籩豆한다.
- ㅂ. 辭神한 후에 陳設한 祭物을 整理한다.

⑨ 目的 : 新年에 집 안에서 行하는 土神祭는 家内の 平安과 災殃이 없기를 祈願하는 것이고, 葬禮때 行하는 土神祭는 墓所의 土神에게 葬禮를 行함을 알리고 屍身의 保護를 祈願하는 것이다.

2. 七星祭

納邑里에서는 正月에 擇日하여 지내는 것이 보통인데 正月에 하지 못 하면 二月이나 三月에도 擇日해서 하기도 한다.

이 祭는 무당을 빌어서 하는 巫式, 스님을 빌어서 하는 佛教式 祭官을 빌어서 하는 儒教式이 있다. 場所는 人間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깨끗한 곳을 고르며 祭場에는 事前에 물을 뿌려서 清潔히 한다. 祭官은 祭日七日 前부터 謹慎하고, 祭物은 메 7器와 菜類, 果類, 酒類 등을 올린다.

七星祭의 祝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七星祭位次

北斗大聖貪狼星君 位

北斗元聖巨門星君 位

北斗直聖祿存星君 位

北斗繆聖文曲星君 位

北斗網聖廉貞星君 位

北斗紀聖武曲星君 位

北斗開聖破軍星君 位

內補道明星君 位

外弼殷光星君 位

祝式.

維歲次 某年某月某日于支 某官某 敢昭告于 七星七君前 伏以祭主姓名 今卜吉日 敢告厥由 生我養我 天地之德 惠我助我 七君之德 有禱必應 合其三德 潛心點禱 薰蒙明德 伏惟明神 顧我心誠 彌灾致祥 除灾降福 使無疾病 舉家受福 壽命延長 彭祖之福 乃積乃倉 公劉之福 八龍烈傳 苟氏之福 令我妻子 享比諸福 鍾馗除耗 如願迎福 不疵不疫 得其箕福 呪且蠶角 俾賜壽福 不懼癘疫 永受遐福 樂在壽域 如川之福 一室同樂 永享景福 伊誰之力 惟神賜福 謹以魚幣 醴齊梁盛 庶品式陳 祇薦于神 尚饗 .

3. 百中祭

牛馬를 많이 기르는 사람이 지내는 祭로서 牛馬의 繁盛을 祈願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現在 於音里에서는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 納邑里에서는 지내지 않는다.

場所는 牛馬가 먹는 물이 있는 곳에서 가깝고 청결하고 묘가 없는 곳에 정한다. 祭物은 메 3 器 과일, 채소, 甘酒, 미나리와 牛馬의 고삐줄(석)을 올린다. 祭床이 없이 돛자리를 깔아 그 위에 祭物을 陳設하고, 祭를 지낸 다음 祭物은 그 자리에서 飲福하고 돌아온다.

4. 祖上崇拜祭禮

納邑里內에서는 節祭로서 正初(陽曆 1 月 1 日)와 秋夕이 있으며 端午, 寒食은 차차 지내지 않다가 약 7 年 前에 完全히 消滅되어 버렸다. 祭日은 日帝時代에 陽曆으로 하다가 解放後 陰曆으로, 지금은 모두 다시 陽曆으로 지내고 있다.

名節 때에 門前祭를 지내는 경우 갯을 올리지 않는 집이 많다. 門前祭는 單獻單爵으로 지내며 잡식한 것 곧, 각 祭物을 조금씩 끌어 모은 것은 지붕 위에 올리고 절명한 것(祭床위의 祭物을 조금씩 떠 모은 것)은 올레(집에 드나드는 出入路)에 뿌린다. 절명을 하는 것은 雜神을 위한 대접으로 명절 때에만 한다.

祭禮는 모든 祭物을 陳設한 다음 자정이 가까와 오면 門前祭를 먼저 지내고, 그 祭物로 조왕고사를 지낸 다음 本祭를 지낸다.

도채비 鬼神을 모시는 집에서는 祭禮를 지낸 다음 고팡에 飲食을 올린다고 한다.

지금은 合祭로 祭祀를 지내는 집도 있는데, 合祭란 祖父母, 父母등의 祭祀를 그 忌日에 行하지 않고 祭日을 정하여 모두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한다. 또 合祭를 해도 世代別을 區分하고 夫婦兩位만을 合祭로 지내는 집도 있다 한다. 그 외는 他部落과 同一하다.

IV. 巫俗信仰

• 할망당

① 名稱 : <할망당>이다. 그러나 <본향당>, <본당>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堂>이라 부르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② 神名 : 召吉長田의 정씨 나라 정씨부인으로 가지 갈라온 송씨 할망이라 한다.

③ 構造 : 과거에는 큰 팽나무를 神木으로 삼았으나 1949年 팽나무의 큰 가지가 부러지고 태풍 때 神木 전체가 부러져 버렸다. 현재는 새로 자란 후박나무를 神木으로 하고 神木 앞에 3개의 自然石 祭壇이 마련되어 있고, 20㎡ 정도의 면적에다 주위에 돌담을 둘렀고 神木에는 3색의 조각, 백지 1장, 실 등을 묶은 당결이가 300여개 걸려져 있다.

④ 祭日 : 大部分이 正初에 擇日하여 家戶別 過歲를 겸해서 찾아가 祈願한다. 그 이외에는 이 納邑里 堂이 <여드레堂>이므로 초여드레나 亥日에 기기도 한다.

⑤ 效驗 : 집안의 아이들이 아팠을 경우나 집안의 소원, 部落共同의 소원을

빌면 效驗이 있다고 한다. 또 神木인 팽나무가 부러진 밑둥이에 고인 물을 어린이들의 허물이나 피부병에 바르니 藥效가 있었다는 傳承도 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 堂으로 가는 길목을 막았다가 奇形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로 전한다.

⑥ 禁忌 : <할망당>에 부인네들이 찾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인사해도 안 되고, 인사를 받아도 안 된다. 또 당에 들어서는 길목이 밟히는데 出入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서도 안 된다.

⑦ 메인 심방:과거에도 남읍리에도 큰 심방이 많았으나 모두 죽거나 他部落으로 移住하였고, 現在는 濟州市 <정뜨르>에서 10餘年前에 찾아와 居住하는 <황심방>이란 사람이 있어, 이 당을 맡아 祭를 지내고 있다.

⑧ 祭物 : 메 2器 돌래떡(다대떡), 과일, 콩나물, 돼지고기(적꽃이에 췌 것) 白紙 1卷(紙錢 및 燒紙로 씌) 실, 쌀 1보시기, 보리쌀 1사발, 물색 형짚 3개, 생선, 甘酒 등을 올린다.

⑨ 其他 : 당에 가는 사람은 모두 부인들이다. 祭物을 차리고 심방을 빌어 당에 가면 먼저 祭壇에 祭物을 陳設하고, 심방이 요령을 흔들며 祝願한다. 祝願이 끝나면 소지를 올린 후 당걸이 곧 3色 형짚(물색), 실, 백지를 묶어 神木에 달아맨다. 이것을 <인정전다>고 한다.

지금은 30代 以上の 婦人들이 많이 찾는 편이고 그 以下の 婦人네들은 反對하는 편이다. 당을 찾아 祝願하는 家戶 수는 150 내지 200 호라 한다.

V. 妖 鬼

1. 도채비

일종의 鬼火로서 納邑里에서는 <당밧>, <팍남이>에서 자주 나타나고 작은 錦山 뒤 沼가 있는 곳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한번 홀리고 나면 시름 시름 앓다가 죽는다고 한다.

또 도채비의 一種인 낮도채비(노랑도채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낮에 산에 많이 나타난다.

사람이 죽으려 하면 도채비가 죽을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며 금년에는 <멕거리>에서 도채비가 나타났었다.

과거에는 도채비 신을 고팡에 모셔다 섬기는 것이 있었다 한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도채비가 장독 뒤에서 불을 반짝이며 <헉헉> 하며 신음소리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며, 또 도채비를 잡고와서 보면 개똥, 흰 비, 흰 사금파리 등이었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2. 허깨

일종의 여자 유령으로 발과 손 部分은 잘 보이지 않고 머리와 몸만 보이는데 동상동 <앞빌네>에서 자주 나타난다 한다.

處女 때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허깨로 많이 변신 하여 나타난다 고도 한다.

3. 도깨비

일종의 男子幽靈으로 허깨와 같은 모습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털병것>을 쓰고 나타난다 한다.

4. 그손새

사람키보다 훨씬 크고 검은 모습이며 보통 한밤중에 길가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다.

사람이 모르고 그 벌린 다리 밑을 지나가면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까지 한다고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 수준>이란 사람이 장수여서 <그손새>하고 씨름해서 이겼다고 한다.

5. 쌀(煞)

사람이나 動物 등을 죽일 수도 있는 독하고 모진 기운이나 빛을 발하는 것인데 이 마을 <문 석규>씨가 동료들과 유자(굴의 일종)를 밤에 따라 갔다가 쌀(煞)을 보았다고 한다.

Ⅶ. 公認宗教

1. 基督教

① 名稱：大韓基督教 예수교 장로회 納邑教會.

② 沿革 및 現況：納邑里는 옛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儒敎思想이 得勢하면서부터 最近에까지 基督教가 자랄 잡지 못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1975 年에 이르러서야 里長을 지낸 바 있는 조동훈(47세)씨에 依해 個人 家屋內에 조그만한 禮拜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이 마을에 基督教가 들어올 때에는 주민들의 外部宗教에 對한 반발과 조 동훈씨 母親의 家出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

이러한 주민의 冷待와 멸시 속에서도 꾸준히 發展하여 온 納邑教會는 濟州市 영락 教會의 援助 아래 信徒들의 두터운 信仰心과 自發的인 協助 아래 現在 鄉舍 옆 部落 중앙에 950 평 상당의 土地(480 만원에 買入)를 確保하여 本格的인 教會를 建立할 계획에 부풀어 있다.

③ 教會施設: 조 동훈씨 家屋內의 조그만한 안채를 빌어 教會堂으로 使用하고 있다. 6 평 남짓한 집안에는 說教用 탁자 1 개와 예수 십자가 以外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간결한 形式으로 꾸며져 있다.

이 以外의 施設로는 조그만한 종각과 전도용 스피커, 화장실, 창고 등이 있다.

④ 教職者: 現在 常住 牧師님을 모시진 못 하고, 다만 水요일과 日요일 날의 周期的인 禮拜 때에만 김 상옥(56세) 전도사가 涯月에서 직접 이 곳 納邑까지 찾아와 說教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곳 納邑教會에는 세 분의 執事가 있어 모든 教會內의 業務狀況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信徒: 納邑里에 教會가 세워진 草創期에는 住民들의 반발이 심하였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나 學生을 대상으로 教勢를 擴張하여 나갔다. 그러던 것이 차차 基督教에 對한 住民들의 認識이 바뀌짐에 따라 現在는 3~4 가구 정도가 基督教를 信奉하게 되었다.

現在 信徒數는 20 명으로 男信徒가 7 명, 女信徒가 13 명인데 그 중 學生이 6 명을 차지하고 있다.

⑥ 其他: 教會의 운영 및 관리는 教人 個個人이 바치는 獻金 및 각종 보조금으로 꾸려져 나가고 있으며, 各個 信徒들은 基督教 教理 그대로 경건한 博愛主義와 사랑으로서 恒時 檢소하고 근면한 태도로 자기 生活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2. 佛教

納邑里에는 現在 두 곳에 각기 다른 宗派의 寺刹이 자리잡고 있다.

1) 月印寺

① 名稱：大韓佛教 曹溪宗 月印寺

② 沿革 및 現況：이 寺刹은 現在 錦山公園 뒤편 울창한 숲 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寺刹이 언제 여기에 지어졌는지 確實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口傳되어 내려오는 얘기로는 4.3 사건 以前에는 涯月里 <신의물>에서 분교되어 納邑里內 <사장터>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가 4.3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帶妻僧이었던 김 창석 (現在 日本에 거주함)씨 집으로 옮기고, 다시 <빌레못> 近處로 寺刹을 옮겼다가 現在는 서 철중(35세) 스님이 3個月 前부터 공양주(그의 아내)와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③ 寺刹施設：150명 남짓한 寺刹內에는 大雄殿을 中心으로 오른쪽·왼쪽에 各各 禪院 1채씩 2채가 있고, 입구 정문 위에는 조그만한 종탑이 세워져 있다. 大雄殿 내에는 釋迦牟尼 佛像 2座와 觀音보살 상을 모시고 있으며, 그 뒷편에는 幀面 7幅(山神壇·七星壇·竈王壇·獨聖壇·神衆壇·上壇中壇)이 가지런히 걸려 있다.

④ 運營：이 寺刹은 信徒會가 構成되어 있어서 모든 寺刹內의 運營,管理는 이 信徒會의 決定에 따라서 행해진다. 이 信徒會의 構成中에 한 가지 特色있는 것은 男女信徒會가 各各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任員陣의 構成을 보면 男信徒會에선 會長·副會長·總務·財務 등이 있으며, 女信徒會는 都化主라 하여 실질적인 責任者와 그 외 各洞 責任者로 짜여져 있다.

寺刹의 운영은 祭日날 불공(사월 초파일·7월 7석·성도일·觀音제일·열반일·정월달) 때 바치는 佛事(施主)와 그리고 春秋에 곡식 1말씩 바치는 것만으로 꾸려져 나가고 있다.

信徒會는 大略 100戶 정도가 된다. 하며 男女信徒의 比率은 4:6이라 한다. 그리고 스님을 모실 때에는 男女信徒會의 合同會議를 거쳐 觀音寺에서 모셔온다 한다.

⑤ 其他：信徒들의 生活 수준과 教育 수준은 中上 정도이며, 大部分의 信徒들은 農事에 從事하고 있으며 소박하고 근면, 검소한 生活을 해 나가고 있다.

이 寺刹의 스님은 자주 바뀌는 편이다. 寺刹에 대한 스님의 權利는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財政問題는 信徒會에서 決定하기 때문에 신도와 주지승과

의 마찰이 있는 것 같다.

2) 靑龍寺

① 名稱：大韓佛教 龍華宗 彌勒佛 靑龍寺.

② 沿革：이 宗派의 本山은 全州市 동완산동의 圓覺寺라 한다

이 寺刹은 1969年 2月14日 現在 寺主人 고 행표(65세) 스님이 부처님의 지시가 있었다 하여 歸德里에서 納邑里에 移住하여 寺刹을 建立하였다 한다.

③ 寺刹施設：200 평 남짓한 寺院 내에는 法堂이 中心에 자리잡고 있고, 그 왼쪽에 客室 2채가 있다. 法堂 內에는 彌勒像 3基가 모셔지고 있으며 탕화 4 폭이 그 뒤에 가지런히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寺刹의 特色은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포근한 가정의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있다 하겠다. 客室 앞 30 평 남짓한 庭園에는 각종의 꽃나무가 滿開해 있었으며, 奇形의 自然石과 自然木들이 그 정원 사이에 가지런히 놓여 있음이 木物園에 온 인상을 주고 있었다.

④ 信徒：現在 200 戶 정도의 信徒가 있으며 아직 信徒會는 構成되어 있지 않고 祭日 날이나 佛供日에는 隨時로 集會를 열어 寺院內의 諸事務에 對해 議論한다.

3) 韓國日蓮正宗佛教會

① 名稱：韓國日蓮正宗佛教會 濟州道 總本部 西部地域 納邑班

② 組織：韓國 總合 本部는 서울에 있고 濟州道 總本部는 濟州市 光陽 停車場 앞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밑에 西部地域, 東部地域, 南部地域의 3개 地域으로 區分 組織되어 있다.

濟州道 總本部에는 本部長이 있고, 各地域에는 地域長(濟州市・東部・西部・南部)이 있으며, 地域長 밑의 各里 班에는 班長이 있다. 現在 納邑班은 西部地域에 屬하며 班長은 이 마을 出身인 金 壬生(48・女)씨가 맡고 있다.

③ 沿革：지금부터 약 15年 前에 現在 日本에 살고 있는 金壬生씨의 父親이 歸鄉하여 이 宗教가 日本에서 發生한 佛教의 한 계통이지만 장차 韓國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널리 퍼져나갈 훌륭한 宗教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다.

그 후 金壬生氏는 1975 年에 日本에 직접 건너가 이 宗教의 法堂에 參拜하고 그 說法을 배워온 후 이 宗教에 對해 本格的인 關心을 갖게 되었다. 金壬生氏는 歸國하여 自宅에 방 한칸을 마련하여 만다라를 모시기 始作함으로써 이 宗教를 信奉하게 되었고 住民들에게 說法을 하고 信徒를 모아 濟州道 總本部에 納邑班으로 登錄하게 되었다.

④ 信徒：現在 信徒數는 45 名으로, 그중 男子가 18 名, 女子가 27 名이며 大部分이 30~50 代의 成人들이다.

⑤ 集會：일주일에 한번씩 各班마다 謹行 座談會를 갖는다. 謹行은 「南無妙法蓮華經<남묘호랑객교>」를 염불한 후 약 2 時間에 걸쳐 座談과 質問時間을 갖는 것이다.

各地域 單位로는 月 1 回 總會를 갖는데 納邑班이 屬해 있는 西部地域 總會는 매달 마지막 土曜日 6 時에서 8 時 사이에 열린다.

濟州道 總本부의 總會는 한 달에 한번, 첫 주 日曜日 10 時부터 열두시 사이의 두 시간 동안 濟州道 總本部 事務室에서 갖는다. 이 總會는 各班長과 地域長이 모두 參席하며, 그 외 成人信徒도 參席할 수도 있다.

⑥ 特徵：實際적이고 現世的인 傾向이 濃厚하다. 이 宗教의 集會는 敎理의 說法보다 現世的인 福利를 討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다. 그것은 이 集會內에서 論議되는 主된 內容이 疾病의 퇴치, 個人의 사사로운 生活 등 修養的인 것임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特色은 그 集會가 生活의 相談場所가 된다는 점이다. 이 集會는 個人의 不安, 苦悶 등을 서슴없이 털어놓음으로써 서로가 위안을 주고 그 解決策을 찾아 그 生活을 打開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宗教는 他宗教에서 볼 수 있는 禁酒, 禁煙 등의 規制가 없이 자유로운 生活 속에서 秩序를 찾고 公益을 圖謀하려고 있으며, 다만 他人에게 害가 되는 行爲를 해서는 안된다는 정도의 制約이 있을 따름이다.

地名

指導教授 金 洪 植
班 員 玄 昌 國 (國教·2)
姜 成 燁 (國教·2)
金 重 植 (國教·1)

1. 등 산 類

무지동산	석재비동산
거문덕마루동산	가경동산
진동산	남선동산
강개동산	언거니동산
세커름동산	뒷동산
지름자리동산	고맹이동산
강다니동산	아이주근동산
장개동산	덕부기동산
마이동산	물귀남동산
툰동산	경명동산
감제동산	뽕쟁이동산
감거니동산	수누왓동산
상덕동산	성벽동산
마니동산	대선동산
불밋동산	짐질이동산
청지동산	문부기동산
작밭동산	가시름동산
고덕실이동산	불칸동산

잉기동산

곤여동산(ㄱ녀동산)

북동산

압동산

조개동산

소록돌동산

웅곰취동산

서양지동산

소대동산

돌태기동산

오로콤동산

삼매동산

노리는동산

소랭이동산

웅치동산

목시동산

개동산

돈방이동산

제석동산

스얏동산

2. 밧 類

개주근밧

맹밧

굴밧

갈남밧

개훈머리밧

닥밧

너븐태역밧

남수밧

고린밧

된밧

애월할망밧

물남밧

당밧

갯셀밧(개선밧)

개남밧

너븐밧

으름밧

양낙밧

짐덕밧

강갑순이밧

조선밧밧

조선달밧

훈착밧

공종밧

파남밧

망태밧

상수밧

3. 왓 類

북대기왓

범유왓

濟州島部落誌(Ⅱ)

조그미왓
범치왓
대왓
범미왓
주외왓
물뱅이왓
소누이왓
괘왓
맹견이왓
엄송이왓
이생왓
너뱅이왓
큰굴왓
마개왓
소누왓
죽새왓
펼둥이왓
비왓
굴왓
세우리왓
마개왓
송산이왓
원송이왓
가시머들왓
원머들왓
당담이왓
영거니왓
임지왓
제왓
누루기왓

총지왓
배왓
곰팡이왓
고비왓
숨꼴왓
뒷절왓
멋세왓
노리식미왓
소개질왓
종내미왓
등맹이왓
자가새왓
조근새왓
물애왓
배아니왓
조근새왓
부대기왓
인더리왓
우무니왓
종구왓
문저리왓
ㄹ오일왓
대고왓
넬왓
남부기왓
분토왓
새든왓
믄루왓
중무니왓
왕돌왓

솔쫄왓
양개왓

홍개 왓
절왓

4. 우 영 類

동골우영
갈남밭우영
·식쫄우영
돌선우영
변선우영
이선우영
큰우영

유지남우영
호방우영
춘두우영
고치우영
구산우영
허판관우영
갈낭우영

5. 터 類

한시니터
남서방터
훈장터
김덕준터
한생이터
마스북터

중문이집터
괴터 (웨터)
정지터
남초관집터
도두기집터
동산터

6. 거 리

큰거리
벉거리
수대빛거리
열여문거리
안올래
물곰는목

둥지거리
도갯거리
향사거리
갓뿔거리
갯거리
숫남거리
서갯질

濟州島部落誌(Ⅱ)

7. 등 네

종나미동네
누루기동네
식못동네
물애왓동네
넙은밭동네

당밭동네
괴터동네
구머리동네
잣동네

8. 골

문지기골
동중골
서중골
가망이왓골
동하골

서상골
동골
서하골
섯골

9. 물

구신물
딤방물
항물
즈새물
소무니물

양유물
여꾸물
짐계물
홍골물
콩꼴물

10. 식 미

오로꼬미식미
늑리식미
바랑식미
염춘식미

정명식미
종나미식미
푼채식미
사장식미

우랑식미
돛식미
승강이식미
보상식미

누루기식미
양낙밭식미
큰식미

11. 뭇

우랑식미뭇
배 암나틀뭇
돌가기뭇
새뭇
송깃뭇
엷구뭇
답단니뭇

사장뭇
빌레뭇
큰몬
소엣뭇
버들뭇
염춘이뭇

12. 굴(穴)

드생이굴
금주굴
제죽굴
석굴
서끄니굴
담박굴
은호굴
중무니굴
항이굴

득승이굴
음지굴
제지굴
한굴
석군이굴
큰굴
하니굴
장여소굴
제맹굴

13. 장

고븐장

무근사장

사장

광명장

14. 술

합바기술

동지방술

버리술

독술

15. 빌 래

압빌래

황개 빌래

어욱빌래

대추남빌래

머수리빌래

갯빌래

괴둥이빌래

구중이빌래

춤드리빌래

무근식빌래

고네침빌래

절왓빌래

댓빌래

츠남빌래

모살빌래

송개 빌래

돛빌래

16. 도

덧남도

큰남도

소왕도

소리남도

므틀도

이생왓도

텍거리도

배염낫도

17. 머 들

원머들

가시머들

18. ㄷ 루

깃드루
진드루
메싯드루
뽑진드루 (뽑진드루)
흑굿드루
ㄹ라지드루
장커드루

산물낭드루
ㄹ기드루
지작낭드루
몰드루
내수드루
불근드루

19. ㄹ 루

광ㄹ루
진ㄹ루
거문덕ㄹ루
백지ㄹ루
문ㄹ루

복단ㄹ루
내구니ㄹ루
개꺸ㄹ루
수리대ㄹ루
폭남ㄹ루

20. ㄲ (케)

식미케

버드낭케

21. ㄲ

큰악케
보도리케
보들케

압케
승낭이케
허병이케

22. ㄴ

濟州島部落誌 (Ⅱ)

소록돌

웃소록돌

지방돌

불근돌

알소록돌

동지방돌

도치돌 (도칫돌)

23. 당

아분당

돛당

자운당

할망당

24. 산 악 명

과오름

고내봉

25. 기 타

불용기 (부릉기)

정통모기

장통이

언거니

개불소니

답다니

용주니

압케통

종내미

승냥이원

강남모기

임경이대섭

곰팡이

등댕이

득술

즈른재

더럭

뿔우레

식큰여

너븐팡

섯거문덕

굴칩

구마리

너븐태역

하운머리

틀왓머리

조근재

도련득소리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

서굴석

바라메 (비리믹)

노꾸메

큰머울

하예미 (헤아미)

아분당이

동머울

〈提 報 者〉

김 영 택 (55 세)

진 운 행 (58 세)

김 태 화 (48 세)

김 성 익 (38 세)

김 정 옥 (68 세)

문 영 하 (66 세)

문 맹 아 (80 세)

김 태 호 (56 세)

김 창 근 (52 세)

김 태 중 (46 세)

김 기 춘 (70 세)

문 유 봉 (70 세)

양 동 형 (15 세)

진 기 방 (15 세)

김 훈 석 (63 세)